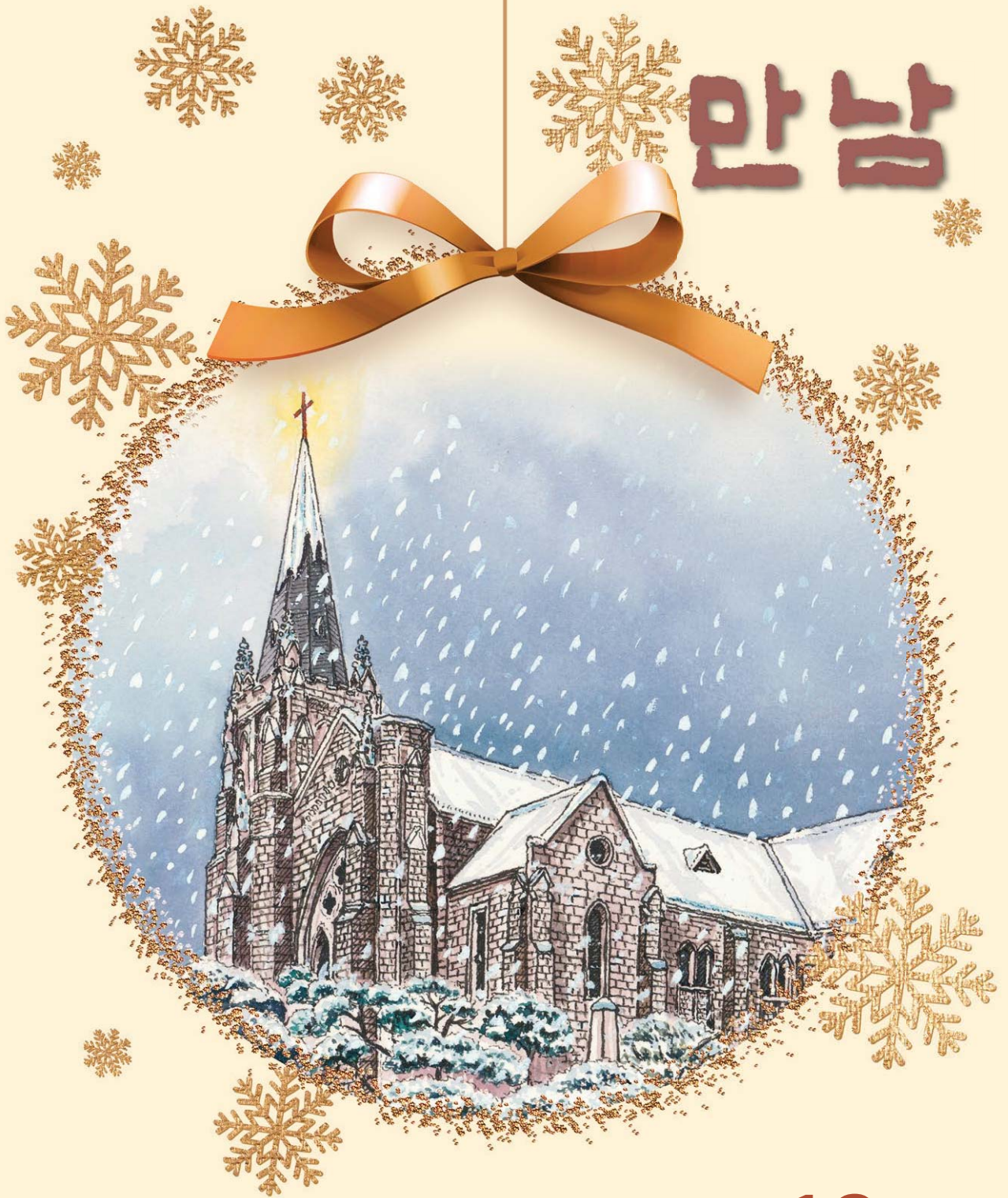


만남



영락이여, 올라가라

(사사기 1:1~2)



표지

12월,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성탄의 기쁨을 나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 사랑의 의미를 다시 새기며 따뜻한 마음으로 주위를 밝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12월
목회력**

- 01 주일 ·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교회창립 79주년, 임직식
- 06 금 · 연합권찰모임 하반기 종강
- 07 토 ·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 08 주일 ·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세례·입교식, 찬양예배 성찬, 제직회
- 15 주일 · 대림절 세 번째 주일
- 21 토 · 성탄음악회
- 22 주일 ·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유아세례식, 사회봉사주일
- 25 수 · 성탄절, 전세대가 함께하는 성탄예배
- 29 주일 · 은퇴식

만남

2024년 12월호

통권 609호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예수님감! 김운성

성탄 특집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

05 사랑,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 오병훈

08 왕의 침공 한홍

교회 창립 79주년 특별기고

10 자랑스런 영락교회 김진홍

땅끝까지 이르러

12 복음 전하며 올라가라! 최영호

14 8행시에 전도의 열정 '꼭꼭' 전도부 전도훈련학교

16 말씀대로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승희

18 저이머시(예수승리)! 고연희, 장연순

다음세대

21 빛과 같은 교사가 되겠습니다! 교사교육부

24 나의 구원, 나의 소망 윤석우

25 Back to the Bible! 고등부

26 기저귀 가는 일조차 제겐 벽찬 감사 김이진

기독교 인문학

28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인간에서 하나님께로' 김향길

32 렘브란트의 자화상, 인생의 영욕을 바라보다 서성록

영락의 울타리

36 네가 어디 있느냐? 김승겸

38 제자-소그룹, 하나를 이루다! 김경애

41 은혜와 비전을 담은 80주년 기념 달력 이주형

44 '영락교회 신앙포탈' 사용 설명서 강명구

48 우리는 '평생대학 실버스타' 친교부 평생대학

50 2024 북적북적 독서행사 공모전 환경직목사 기념사업회

교회소식

54 추수감사절 총동원 전도주일 외

60 뷰티풀 라이프...셀 위 댄스? 정재원

61 영락시어터 12월 상영 영화



예수님감!

김운성 위임목사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증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마태복음 2:16)

신대원에 다닐 때 청량리중앙교회 원로목사이셨던 임택진 목사님으로부터 목회자의 소양에 대해 한 해 동안 배웠습니다. 임 목사님은 그 인품과 삶으로 많은 존경을 받던 분입니다. 요즘에는 지식과 재주가 출중한 이는 많은 것 같지만, 임 목사님과 같은 목회자를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 아쉽습니다.

임 목사님께서서는 목회자의 기본은 사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성도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는 칭찬의 은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칭찬해주면 힘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말 못하는 아기들도 칭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기가 있는 가정을 심방하면 반드시 아기를 칭찬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은 아기를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

리는 보통 “그 녀석 대통령감이네, 장군감이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박사감, 판사감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또 크고 강건한 아기에게는 “운동하면 금메달감이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기를 두고 “예수님감!”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커서 예수님처럼 살라고 한다면 아기의 부모가 좋아할지도 의문입니다. 비록 성도라 해도 자기 자녀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정말 바랄까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될까 봐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예수님처럼 매 맞고 모욕당하고, 예수님처럼 죽는 것을 바라는 부모가 있을까요?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녀가 얻어맞고 오면 “넌 왜 때려주지 못해? 바보 같이!”라고 말할 때, 그 엄마가 성도라는 것이 무색해집니다.

더구나 이런 모습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도 맞지 않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흑인영가 중 하나로, 워크(F.J.Work)의 흑인영가집(1907년)에 처음 수록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찬송은 하면서
아기에게 “예수님감!” 칭찬 못하는 건
우리 안에 헤롯 같은 괴물 넣어둔 탓
성탄의 달, 예수 닮은 성품 다시 살려내야*

이 찬송가의 가사는 흑인 노예가 주님께 부른 것이 아니라, 백인 성도에게 “나도 기독교인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데서 온 것입니다. 당시에는 백인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흑인은 영혼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고, 흑인이 사람 모양을 가진 이유는 흑인을 노예로 부릴 때 혐오감이 덜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왜 흑인들은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백인처럼 힘이 생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어쨌든 이 슬픈 찬송가의 4절은 ‘예수 닮기 원합니다’입니다. 이 가사는 신자 되기 원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 마음을 찌릅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기도하는데, 정말 그것을 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닮으려면 겸손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는커녕 반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이 되고, 제사장

처럼 행동합니다. 다른 이에게 얼마나 심하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마음에서는 이미 많은 가족, 이웃, 친지, 동료 성도에게 증오의 면류관을 씌워 사정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습은 로마 병정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분봉왕 헤롯처럼 행동합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학살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의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 헤롯과 흡사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아기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 안에 맑고 아름다운 성품을 주셨습니다. 아기들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의 성품을 가진 괴물을 넣어둡니다. 그러니 우리가 헤롯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예수님을 닮은 선한 성품을 잘 키우면 좋을 텐데, 다 죽이고 괴물을 키우고 있으니, 우리 자신이 안타깝습니다.

12월은 성탄의 달입니다. 대림절을 지키면서 탄생하여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겸손하여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고난당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다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탄의 달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닮은 성품을 다시 살려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참된 자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영락의 성도들과 축하하며 기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만남**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

예수님은 다윗왕의 후손이었지만
세상의 절대권력을 쥔 세속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구유 안에 가장 낮은 이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며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신
사랑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2000여 년 전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과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과 무거운 적막만이 흐르는
세상의 질서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평화의 빛이
온 세상을 환히 밝히길 소망합니다.

사랑,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지난 11월의 쌀쌀한 어느 날, 몇몇 은퇴 권사님께서 청년부 교역자들을 격려하시겠다고 농어탕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국물 속에는 권사님들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대화 가운데 기억에 남는 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특별히 영락교회에서 평생을 섬기며 만나 온 여러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말씀도 능력도 중요하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목사님은 사랑 많으신 분”이라고 하시며 엄지를 치켜세우셨고, 다른 권사님도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말씀으로 동의하셨습니다. 더불어 “최근에 평생대학에서 고린도 전서 13장의 ‘사랑장’을 외우라고 해서 열심히 외웠다”라는 경험을 나누시며,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게 해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어려운 고비들을 지나오셨지만, 그



오병훈 목사
3040 전담



럴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라고 마음에 말씀하시고, 또 “내가 여기 있잖아”하며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 단 한 순간도 권사님을 놓지 않으셨음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잊고 있었던 기도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응답하신 은혜를 감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듣고 나니,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집필을 요청받고 원고 준비하는 중에 권사님들의 이야기와 고백이 계속 마음에 떠오릅니다. 사랑,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자 우리를 살리시고 지금도 살게 하시는 전부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내로 우리를 품으시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정의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고린도전서 13:4)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오래 참으시며,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돌아온 탕자 비유는 이 사랑을 선명히 드러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아버지는 여전히 집에 남아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누가복음 15:20) 이 아버지의 행동은 단순한 용서를 넘어, 오랜 기다림의 사랑이며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늦거나, 상황이 기대와 다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으며,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살리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수치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모든 변화와 회복은 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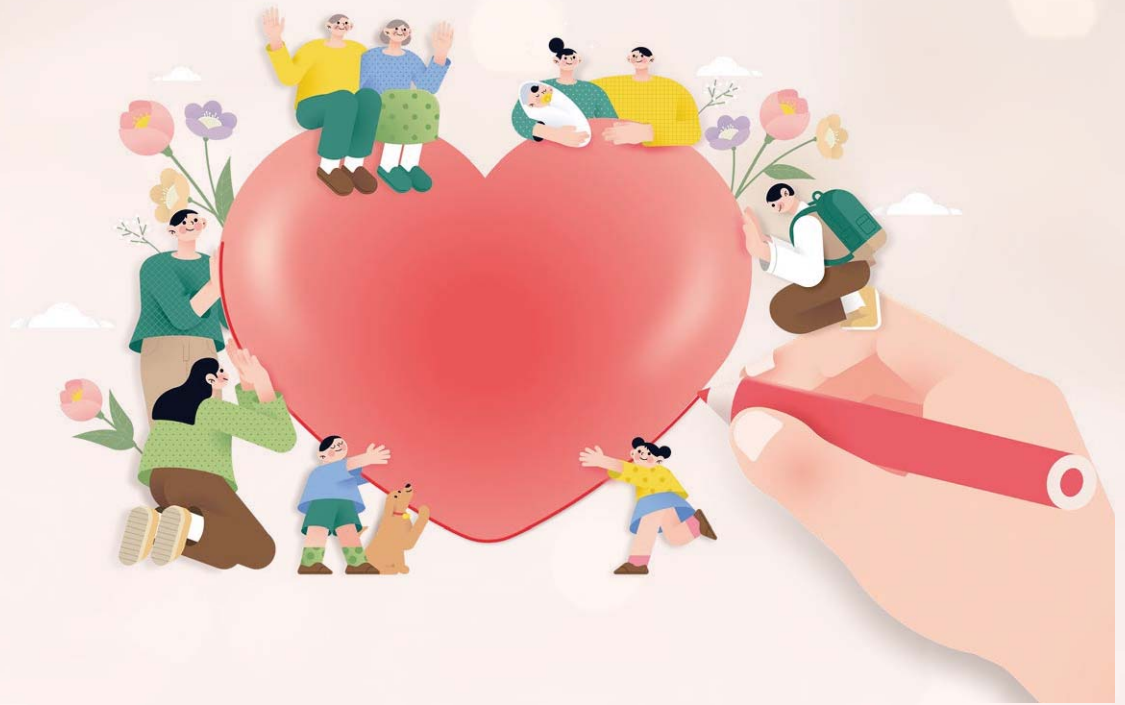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채우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과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단순히 이웃에게 잘 대해주는 차원을 넘어,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살렸고, 그 사랑으로 인해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만이 영원하며,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2025년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은 우리의 삶에 생명을 불어 넣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달될 때, 그 사랑은 그들을 살리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오래 참음과 인내로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곧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



을 이기며,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듭니다.

목회하면서 몸과 영혼의 문제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막대한 상황에 부딪친 이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망가진 가정 환경에서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던 사람, 돈과 권력에 집착하며 불안에 떨던 사람,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삶의 의욕을 잃었던 사람, 거짓된 세상 문화에 중독되어 하나님을 떠난 사람, 상처와 죄책감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사람, 반복된 실패로 낙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 중 다시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볼 수

있었던 모습과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 말씀, 사랑의 십자가 은혜, 사랑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구원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가득했습니다.

2025년에도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기다리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반복**

왕의 침공

가짜 왕 사탄에 의해 망가진 하나님의 왕국

옛날 옛날에 지혜롭고 인자한 왕이 다스리는 아주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가 있었다. 그런데 왕이 잠시 외국으로 간 사이에 왕의 신하로 있던 자가 부하들을 데리고 반역을 일으켰다. 반역자는 오랜 시간 치밀하게 추종자들을 포섭하여 반란을 준비했기에 순식간에 왕좌를 차지할 수 있었다. 이후에 나라를 잘 다스렸다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반역자 왕은 아주 폭압적인 군주였다.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감옥에 갇혔고, 나라는 가난과 범죄와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백성들은 날마다 고통으로 신음하며 살았다. 평화롭고 부강하던 왕국에는 어둠과 절망의 기운이 가득했다. 많은 사람이 진짜 왕의 귀환을 갈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토록 모든 사람이 기다리던 진짜 왕이 돌아오셨다는 것이다. 그는 아주 평범한 나그네의 복장을 하고 왕국의



작은 마을에 나타났다. 의로운 진짜 왕이 도난당한 자신의 왕국에 상륙했고, 자기에게 충성할 신하를 다시 모으고 계시다는 것이다. 때가 되면 진짜 왕의 군대가 왕궁으로 몰려와서 반역자를 몰아낼 것이라고 했다.

이 소식을 접한 반역자 왕은 한편으론 분노했고, 한편으론 불안해서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사방으로 부하들을 풀어서 진짜 왕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없애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점점 진짜 왕을 따르기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만 갔다.

소설 『나니아 연대기』의 모티프가 된 C.S. 루이스의 동화에서 발췌한 스토리다. C.S. 루이스는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태어난 아기 예수가 바로 그 돌아오신 진짜 왕이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왜 이토록 많은 미움과 폭력과 음란과 욕심과 환경 파괴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바로 반역자 사탄이기 때문이다. 진짜 왕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아무 소망 없이 차갑게 얼어붙은 겨울 왕국 같았다.



한 홍 목사
새로운교회 담임

성탄절은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심을 선포한 날

그런데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진짜 왕이 상륙 하셨다. 크리스마스는 진짜 왕의 침공이다. 지금 이 세상을 잠시 장악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은 진짜 왕이 아니고 가짜 왕이다. 그는 잔인하고 추악한 왕이다. 그래서 그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이 이처럼 어둡고 혼란스러운 것이다. 우리도 한때 가짜 왕의 통치 밑에서 죄의 노예로 살았다. 그러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진짜 왕의 침공인 크리스마스가 없었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비참했을 것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했을 때는 몰라서 가짜 왕의 리더십 밑에서 살았지만,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우리는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당시 헤롯은 베들레헴 일대의 아기들을 모두 죽이면서까지 아기 예수를 찾으려고 했다. 그의 반응은 어쩌면 죄로 망가진 인간 모두의 모습이기도 하다. 만약 내가 왕이거나 왕이 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와서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한다면, 둘 중 하나는 물러서야 한다. 왕좌에 앉을 수 있는 이는 한 명뿐이다.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심을 선포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 충성을 요구하신다.

내 안의 헤롯왕이 진짜 하나님 못 찾게 해

그런데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네가 왕이 돼라”라고 속삭인다. “네 인생은 네가 좌지우지해야지, 왜 남의 말을 듣느냐”라고 한다. 나의 왕좌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존재가 나타나면 경계하고 죽여버린다. 이런 작은 헤롯

왕 신드롬이 우리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다. 신앙을 갖기 원하는 사람 중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도 많다. 그들은 자신의 부하가 되어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요술램프의 지니 같은 하나님을 찾는다.

한때 교회를 다니다가 믿음을 버렸다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가 믿음을 버린 이유는 인생이 자기 맘대로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욕심을 채워줄 하나님을 찾다가 실망하면 신앙을 버리는 거다.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면 부인하거나 불같이 화를 내며 죽이려고 달려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헤롯왕이다.

우리 인생의 왕좌, 그리스도께 내어드려야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는가?’ 이것이야말로 죄 많은 인간의 마음에 내재한 가장 불편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인생의 왕좌에 스스로 앉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정한 왕의 다스림에 본능적으로 반발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말구유에 나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인생의 왕좌에 스스로 앉아 있을 수 없고, 그분께 자리를 내어 드려야 한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잠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헤롯이 죽고 나서야 이스라엘로 돌아온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옛사람이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며 다스리기 시작하신다. 나의 인생은 그때부터 더는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만남**

자랑스런 영락교회

영락교회는 1945년 해방 이후 겨레의 격동기에 시작되어 온갖 풍상을 겪으며 한국교회를 지키고 겨레를 지켜 온 교회입니다. 영락교회의 시작은 한경직 목사님과 동지들이 지금의 중구 저동에서 시작된 이래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켜 왔습니다. 도중에 강남 바람이 불어 학교들도, 교회들도 목이 좋다고 강남으로 옮겨 가던 시절에도 영락교회만큼은 제자리를 지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 교회에서 설교나 집회를 인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설교를 하면 그 교회 교인들이 받아들이는 반응이 다릅니다. 그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 그 교회의 질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반응이 뛰어난 교회들 중 한 교회가 영락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 전체에서 영락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빼어나합니다. 내가 느끼는 바로는 영락교회의 자랑스런 전통이 세가지입니다.

영락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세 가지

첫째 영락교회는 복음적인 전통이 확고합니다.

한국교회 전체의 장점이 복음적인 전통이 강한 점입니다만 그중에서도 영락교회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 전통은 설립자였던 한경직 목사님 때로부터 뿌리를 내린 아름다운 전통이라 하겠습니다. 복음적 전통을 창립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이 고마운 일입니다. 지금 서구 교회는 복음적 전통에서 벗어난 지 오

래입니다.

한국 땅에 장로교를 뿌리내리게 해준 미국 장로교도 복음적인 전통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유럽교회, 미국교회의 이런 흐름을 바로 잡아 줄 사명이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처럼 한국교회를 지켜 온 교회들이 심기일전하여 세계교회 전체가 복음적인 전통을 되살리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중심에 영락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영락교회는 훌륭한 평신도들을 많이 배출하여 나라의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게 하였습니다.

영락교회가 길러낸 영락인들이 기업계, 학계, 정치계를 위시하여 각처에서 성경적인 삶을 실천하여 왔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전통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영락교회가 그간에 이룬 업적 중의 하나가 교육 사업에 헌신한 점입니다. 중·고등학교를 세웠고 기독교 대학들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도들에게 성경교육과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올바르게 지도했습니다.

셋째 영락교회는 교회의 사회적 사명을 강조하여 기독교의 역사의를 강조하여 왔습니다.

영락교회는 한경직 목사 시절부터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오면서 기독교의 자랑스런 전통



인 역사의식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것도 어느 교단처럼 사회 정의, 민주화 운동을 요란스레 강조했던 것이 아닙니다. 소리 없이 조용한 가운데 실천해 왔습니다. 역사의식(歷史意識)은 성경적 신앙의 위대한 전통입니다.

지구상에 종교가 많지만 성경처럼 예언자들의 전통을 강조한 종교는 없습니다.

바른 신앙, 좋은 교회의 3대 필수요건

- ① 복음적인 신앙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 ② 교회 중심의 생활이 분명해야 합니다.
- ③ 역사의식이 뚜렷해야 합니다.

영락교회는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갖추어 왔던 교회였습니다.

나와 장로회신학대학의 동기생이었던 임영수 목사가 영락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던 때였습니다. 그때도 농촌에서 목회하고 있던 나는 임영수 목사를 축하하기 위해 영락교회를 찾았습니다.

임 목사와 반갑게 인사를 나눈 후 영락교회 부임을 축하했을 때 겸손이 몸에 배인 인물인 임영수 목사는 조용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김 목사가 축하하여 주니 고마운데 잘 감당할 수 있을런지 염려된다면서 말했습니다. “영락교회에 부임하여 보니 대형교회가 지나는 문제점들을 많이 느낀다” 했습니다. 물론 빼 있는 지적이요, 실감 나는 지적이었지요. 그 말을 듣고 내가 말했습니다.

“대형교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겠지요. 그러니 너무 서둘러 고치려 들지 말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런 분위기로 바로 잡아나갑시다.”

이후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도 영락교회 안에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 미래지향적인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교회의 취약점을 치료해 갈 명약(名藥)이 있습니다. 신약, 구약이란 약입니다. 어떤 약점, 어떤 증세도 고칠 수 있는 약 중의 약입니다.

한국교회 전체의 자랑이자 영락교회의 자랑이 있습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 그리고 삶에서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글을 마치며 영락교회 성도님들께 당부하고픈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영락교회의 자랑스런 전통을 이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만남**



김진홍 목사
두레수도원

“

영락이여, 복음 전하며 올라가라! 총동원 전도캠페인, 8주 대장정 마무리

”

지난 9월 22일(주일) 시작된 '2024 영락 총동원 전도캠페인'이 추수감사절이었던 11월 17일을 총동원 전도주일로 드림으로써 8주간에 걸친 전도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총동원 전도캠페인은 전도부(부장 임우섭 장로)의 사역 중 가장 큰 사역으로 연초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사도행전 1:8), 전도부 임원들은 복음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왔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지요. 전도부 봉사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기도로 매달려 왔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8주간의 여정

총동원 전도캠페인은 기도로 전도대상자를 작성하고 전도작정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전도작정서를 작성한 성도들은 배포된 <전도기도복>을 통해 기도 내용을 실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한 <전도기도복>은 성도들이 전도자로서 영적으로 준비하도록 돕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도 관련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도자로 영적 무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총동원 전도캠페인 기간 동안 전도부는 베다니광장과 봉사관 앞 교회 마당에 전도 부스를 운영하며 성도들의 전도작정서 작성과 접수를 도왔고, 전도캠페인 홍보영상을 두 차례에 걸쳐 주일 1~5부 예배 시간에 상영함으로써 성도들의 전도 비전을 고취했습니다. 그 결과 약 500명의 성도가 1,500여 명의 전도대상자를 작성하여 총동원 전도주일에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전도 물품이 담긴 '전도 키트 선물'도 세 차례 나누어 드리며, 성도들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전도대상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최영호 안수집사
전도부 차장
서대문·은평교구

전도 비전 공유를 위한 초청 간증과 특별금요기도회

11월 1일 금요연합권찰 모임에서는 온누리교회 박인숙 권사의 전도 간증을 통해 성도들이 간접적인 전도 경험을 쌓을 기

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전도캠페인 기간 열린 세 차례의 전도 특별 금요기도회는 견고한 영적 무장의 기회였습니다. 11월 1일 라존석 목사님(사람살리는교회)을 시작으로 8일 이인호 목사님(더사랑의교회), 15일 주현신 목사님(과천교회)이 차례로 강단에 서서 탁월한 전도 노하우와 함께 영락 성도들이 영적 깨달음을 얻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전도 비전의 불꽃을 점화시켰습니다.

강사 목사님들은 설교를 통해 “전도가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며, 우리가 복음에 빛난 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심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전도소그룹 모임과 기도 릴레이

전도캠페인 기간에는 6개 그룹(대략 80명)으로 나뉜 전도소그룹 모임을 5회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전도기도복)과 함께 올해 처음 도입한 전도소그룹은 가족전도, 지인전도 등 전도대상자별로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공유하고 중보기도를 나눈 영적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전도부 최재선 목사님의 성경공부 인도와 전도폭발훈련을 받은 탁월한 전도자들이 소그룹장으로 섬기며, 전도현장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간증과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한편,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릴레이도 이어졌습니다. 전도부 실행위원들은 총동원 전도주일을 위해 40일 릴레이 금식기도를 진행했고,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일 당일에는 약 150명의 새가족이 처음 교회를 방문했고, 새가족부의 연계를 통해 새가족 교육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도부의 놀라운 열매와 비전

매년 총동원 전도주일을 특별한 날로 지키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전도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락 성도 모두가 전도훈련학교에서 진행하는 전도폭발훈련(화요일, 토요일)을 받아 탁월한 전도자가 되고, 한국 교회 영적 부흥의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전도부는 노방전도, 병원전도, 군전도, 금요 직장인예배 등 다양한 전도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도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성도는 언제든지 전도부 사무실(50주년 기념관 607호)의 문을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올해 상반기에는 화요일 개인전도 891명, 팀전도 164명(결신률 89%), 토요일 개인전도 329명, 팀전도 638명(결신률 72%)이라는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영락 총동원 전도캠페인이 전도부 주관의 연례행사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락의 전 성도가 기도로 참여하며 뜨거운 전도의 불꽃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번져나가기로 소망합니다. 복음 전도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만남**

“ 8행시에 전도의 열정 ‘꼭꼭’ ”

올해 하반기, 42기를 맞이한 전도훈련학교 토요일은 10월 19일부터 26일까지 팀워크를 다지기 위해 특별히 ‘전도폭발훈련학교’를 주제로 8행시 짓기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흔히 ‘글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다소 어려운 주제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런 편견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전도폭발훈련자들이 지은 8행시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사랑, 복음 전도의 비전과 열정이 가득 담긴 아름다운 시의 향연이었습니다.

전도부 전도훈련학교(토요팀)

전도

부르신 곳이라면 언제나, 어느 곳이나! 한 손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모습 속에 기쁨과 감격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가득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훈련 과정입니다. 훈련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가 적극적인 신앙생활과 기도, 경건의 삶으로 변화되며, 이웃을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갑니다.

폭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각자 처한 현실과는 상관없이, 세상이 참 아름답게 느껴지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주변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죠. 꼭 전하고 싶은 분에게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 복음을 전했을 때의 감격을 어디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폭발’의 참 의미는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배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폭발훈련학교

도전할지 말지 고민이신가요?

폭발이라는 단어 때문에 망설여지시나요?

발상을 바꿔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훈련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연습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거예요.

학수고대하는 마음으로 훈련 신청하라 가 볼까요?

교고성! (3단계 성유진 훈련자) **만남**

훈련학교

전도폭발훈련은 국제전도폭발본부의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교제와 전도, 제자훈련, 교회 성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든 성도는 모두 전도자’라는 원리로, 평신도를 위한 신앙무장 사역이자 현장실습을 핵심으로 하여 충성된 전도자를 세우는

2025 전도훈련학교 안내(화요일/토요일 12주 과정)

상반기: 3월 첫 주 개강, 하반기: 9월 첫 주 개강

화요일: 오전 10:20~오후 12:30
12주간 매주 화요일, 50주년기념관 4층

토요일: 오후 1:50~오후 4:30
12주간 매주 토요일, 봉사관 지하 예배실

전도폭발훈련학교 8행시

1그룹

- 전** 도의 꽃은 노방전도입니다
- 도** 전해보세요!
- 폭** 죽처럼 터지는 은혜의 불꽃을 그곳에서
- 발** 견하게 될 것입니다
- 훈** 련과 복음 제시
- 련** (연)습과 반복으로 전도에 힘쓰면
- 학** 수고대하며 갈망하던 그 한 영혼이
- 교** 만과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올 것입니다.

5그룹

- 전** 하라 하시기에
- 도** 와주세요! 주님께 기도하니
- 폭** 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네
- 발** 을 씻겨 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 훈** 련자님과 함께 간다네
- 련** (연)습한 대로 복음 전할 때
- 학** 려고사 시릴 보듯 열심히 암송하여 복음의 결실을 맺어
- 교** 회로 인도하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아름다운 전도자 6그룹

- 전** 할 때 전도자는
- 도** 구를 안가지고 나선다.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간다.
- 폭** 우가 과도
- 발** (팔)순이 되어도
- 훈** 련시키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 련** (연)꽃처럼 아름다워지고
- 학** 처럼 도도해지면서
- 교** 회를 빛내는 일꾼이 되어간다.

하나님 7그룹

- 전** 도훈련 끝나고 집 가는 길에
- 도** 로 끝에 있는 멋진 분에게
- 폭** ~ 안겨버렸다.
- 발** 꿈치를 들어 그의
- 훈** 훈한 얼굴을 보니 그동안의
- 련** (연)단과 고난이 씻겨 내리는 듯했다.
- 학** 수고대하며 다시 그 얼굴을 보니 그분은
- 교** (고)마우신 하나님이었다.



말씀대로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Israel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1상)

지난 2020년, 저는 선교 단체로부터 파송받고 캄보디아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2년 동안 선교지로 나가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로 준비하던 중에 주님께서 전에 없던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겔 땅으로 보내시오니 샬롬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호수아 15:19)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저를 이스라엘 네게브로 부르셨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동남부의 네게브는 광야이자 황무지입니다. 이스라엘 영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이 개척되어야 유대인들이 열방에서 돌아와 이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근, 지진, 전쟁과 같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분쟁의 중심지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움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부어 주신 주님

3년 전 그토록 기다리던 네게브로 가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저를 메시아니즘(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 유대인이 세운 기도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유대인과 함께 사역하게 하

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금서로 여겨 읽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사야 53장을 복사해 나눠주고, 관심을 보이는 유대인에게는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스라엘 비자 문제는 여전히 큰 도전입니다. 3개월마다 다른 나라를 방문해야만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초,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고 다른 나라로 추방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는 저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으로 놀라우십니다. 이를 통해 비자 문제로 다녔던 나라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길이 막힌 듯하나 주님은 열방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14)

열방이 충만한 수에 이르러야 주님이 다시 오시기에, 저는 열방을 위한 기도자로 예배하며 이 걸음을 걷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을 다시 밟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때에 저는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땅, 네게브에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섬기며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안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시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가 없으심을 믿으며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편 122:6) 만남

이승희 선교사



1 사밧(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 가정



2 오순절을 기념하는 순례 행진



3 예수님이 열두 제자와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던 마가의 다락방 내부



저이며시(예수승리)!!!



한국도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네요. 네팔도 계속 덥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아침저녁으로 긴 소매 옷을 입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팔은 요즘 트레킹하기 좋은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집에서든 멋진 히말라야 설산을 바라볼 수 있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네팔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홍수와 피해 복구

얼마 전 폭우로 인해 강 주변과 저지대에 살던 현지인들이 홍

수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집이 떠내려가고 산사태로 도로가 막히며, 하루아침에 살 곳을 잃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함께 복구하는 도움의 손길로 많이 회복되어가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아가페 홈'을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가페교회는 낮은 지역에 있지만, 다행히 비가 오기 전에 하수구를 미리 정비하여 큰 피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가페교회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의 가정도 무사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만, 아가페 공동체를 섬기는 스태프 중 한 명은 집에 물이 들어와 가족들이 떠내려가는 안타까운 일을 겪었습니다. 생필품을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들과 나눌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1 신생아로 '아가페 홈'을 찾았던 이삭. 어느덧 어엿한 청년이 되어 내년 봄 한동대에 입학할 예정이다(왼쪽은 어릴적 모습).

2 '아가페 홈'에서 생활하는 소중한 천사들



2

'아가페 홈' 이야기

'아가페 홈'은 고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가정공동체입니다. 생후 13일 된 신생아로 '아가페 홈' 품에 안겼던 이삭이 어느덧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년 봄 한국 한동대학교 생명과학부에 장학생으로 입학합니다. 사춘기 시절 방황하던 이삭이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염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이에게 크나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로,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홉스(Hopes) 탁구 교실,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사역

코로나 이후 네팔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조사 대상이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교회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는 아가페교회 안에 홉스(Hopes) 탁구 교실을 열었습니다.

홉스 탁구 교실은 탁구를 배우고 싶지만 훈련할 장소가 없거나,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아이들과 선수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단순히 탁구를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을

복음으로 양육하여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선수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8명의 선수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하루 여섯 시간씩 훈련하며, 다가오는 네팔 내셔널 올림픽 탁구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어컨도 없고 탁구대 네 대만 놓인 좁은 공간에서 훈련하지만, 선수들이 열심히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린 네팔 APM 주니어 챔피언십 탁구대회에 우리 홉스 탁구 교실 학생들이 출전해서 단체전과 개인전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저녁 5시부터 7시까지는 꿈나무 학생들이 훈련받습니다. 수업 후 피곤하지만 밝은 얼굴로 탁구를 배우고, 즐겁게 연습하는 모습이 대견스럽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기대되며, 이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시간이 오기를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설립 1주년 기념 '홉스 탁구 아카데미 토너먼트 대회' 예정

오는 12월 4일이면 홉스 탁구 교실이 설립 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난 1년 동안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



홈스 탁구 교실을 방문한 88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영자 선교사와 함께
(왼쪽은 필자)

적을 얻으며, 미래의 네팔 탁구 꿈나무들을 길러내는 사역을 펼쳐왔습니다.

이번 1주년을 기념하여 12월 6일과 7일에 '홈스 탁구 아카데미(HTTA) 토너먼트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대회는 단순히 탁구 경기를 넘어, 현지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팔인과 한국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 시간을 통해, 탁구를 매개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 상금, 트로피, 메달, 간식, 점심 대접 등을 준비하려면 약 200만 원(100명 기준)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기억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동참해주시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네팔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소망합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 주시길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네팔에서의 감사와 소망

매년 10월이면 네팔에서는 힌두교 전통 명절인 다샤인(Dashain) 축제 기간을 보냅니다. 무려 15일간 이어지는 다

샤인 축제는 네팔 힌두교 최대의 축제로, 관공서나 학교가 쉬는 일종의 방학 기간이기도 하지요. 우리나라 추석처럼 새 옷을 사 입고 고향에 가서 식구들과 지내고 읊니다. 이때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가 텅텅 빈 느낌이지요. 그러나 제게는 제일 멋진 하나님을 모른 채 우상숭배하는 네팔인들의 모습을 극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라 더욱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네팔에서 사역하면서 안타까운 일보다는 감사한 일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20년 전 이곳에 온 이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씩 열매 맺는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옆에서 위로해주시고 함께해주시는 멋진 주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며 매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네팔이 영적으로 변화되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만남**

네팔에서 고연희·장언순 선교사



빛과 같은 교사가
되겠습니다!

영락교회 교사교육부는 다음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귀한 사역에 헌신할 교회학교 교사를 양성하여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매년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신입 교사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사로서의 기본 소양과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53명의 예비 교사가 신입 교사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주간 진행된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신앙의 성숙과 사명감을 심어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사로 부르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나누는 사역에 대한 열정을 새롭게 다지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수료생 중 몇 분의 고백을 전합니다.

제공 교사교육부

김인호 성도(성동·광진교구)

교사교육을 시작한 계기는 단순했습니다. 내년엔 조카 두 명이 각각 유아부와 유치부에 올라가게 되는데, 매주 조카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단순한 시작 이상으로, 저를 여러 방면으로 성장하게 한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교사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교사는 단순히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넘어, 학생들의 인격과 영적 성장을 돕는 중요한 책임감을 지녀야 함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교육과정을 통해 교사의 바른 자세와 신앙의 본질을 배우며,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고 바른 인성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교회학교 교사의 핵심 사명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동료들과 소통하며 신앙과 교육적 관점을 넓히는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배움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교사로서 계속 성장하여,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박지영 성도(중구·용산교구)

조원들과 함께 나눈 시간은 정말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고민이나, 각자 삶의 자리에서 겪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나누며 서로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부름심을 받아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앞서 가는 사람을 잘 따라가고, 뒤에 오는 사람을 잘 챙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는 분명한 뜻과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순간마다 주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김혜승 성도(서초교구)

교사교육 개강 전부터 교육이 시작되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교사의 시작은 교사교육을 듣는 것부터”라는 성경공부 모임 리더의 권유가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설렘과 두려움을 안고 참여하여, 학생의 마음으로 배우고 보조 교사로 차근차근 시작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의 책임과 소명을 깊이 새기고자 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가장 크게 배운 점은 ‘빛과 같은 교사’가 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돕는 것이 교회학교 교사의 본질임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송악기도처 체험과 독후감 작성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철신 원로목사님과 함께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하던 순간은 가슴 벅찬 경험이었습니다. 신앙 선배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독후감 작성은 교육부서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일에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천윤영 성도(안양·수원교구)

교육을 결심했던 이유는 당장 교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할 때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교육 모집 공고를 처음 접했을 때는 부담감에 망설였지만, 개강 2주 차에 용기를 내어 합류하게 되었고, 그 선택을 한 제 자신에게 지금이라도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매주 아침 일찍 강의를 듣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 다. 중간중간 휴강 주를 기다리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실질적인 내용이 많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교육의 대부분이 교사의 마음가짐, 신앙의 본질, 그리고 회복에 관한 내용이라 마음이 한결 편안 해졌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놓치고 있던 중요한 가치를 깨닫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DMZ 견학은 평소에는 경험하기 어려운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따뜻하게 챙겨 주신 조원들 덕분에 끝까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김정희 집사(안양·수원교구)

교회학교 교사로 부르시고 이 귀한 교육의 길을 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과정 내내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강사님들, 제 이야기에 공감하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나눠주신 우리 조원들, 그리고 밝은 미소로 저희를 맞아 주신 전도사님과 교사 교육부의 모든 봉사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교육과정 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지식과 깨달음을 통해 도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과정을 통해 교사로 섬기고자 하는 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지만, 주님께서 제 연합을 채우시고 인도해주시길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가 되기로 다짐합니다.

우윤지 성도(마포·영등포교구)

CebC 교사로 섬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이 교육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는 동안 제 안에 있던 질문과 고민들에 하나씩 응답을 얻게 되었고, 모든 가르침이 마치 광야에서 받는 만나처럼 새롭고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교사로서 더 나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열망이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 가고 그분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기 위한 여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교사로서의 마음가짐과 태도, 지식을 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점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배움의 여정은 저 자신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 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명기 6:5)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그분이 주신 사명을 위해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중등부 여호수아찬양대 정기연주회
나의 구원, 나의 소망



중등부(부장 차남수 장로) 여호수아찬양대 정기연주회가 지난 11월 3일(주일) 찬양예배 직후 베다니홀에서 '나의 구원, 나의 소망'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매년 중등부찬양대 정기연주회를 준비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주제로 찬양곡들을 선정해, 부르는 아이들이나 듣는 청중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석우 성도
 강동·송파교구
 중등부찬양대 지휘자

하나님과 함께한 광야의 시간

올해는 제가 합창지휘 대학원(석사)을 마치는 해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특별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학업과 앞으로의 진로로 큰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중등부 교사 합창 연습을 위해 반강제로 밤을 새우고 새벽기도회에 참석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말씀은 '인생의 광야라는 주 제였는데, "광야로 보내졌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낙심하지 말라. 피할 길

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메시지가 저를 깨웠습니다.

당시 연주곡이었던 <나의 가는 길>을 중등부 아이들이 부르던 순간, 저는 마침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멋진 아이들과 더 훌륭한 찬양을 드려야겠다는 결심이 생겼고, 그 소망으로 재취업이 아닌, 전부터 꼭 공부하고 싶었던 합창지휘를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번 이런 고백을 듣는 아이들은 지겹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들 또한 자기 삶에도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집트 왕자> 음악으로 찬양의 메시지 전하기

이번 연주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가장 어울리는 음악으로 영화 <이집트 왕자>의 곡들을 선택했습니다. 이 음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야기를 생생히 담고 있어, 이번 연주의 메시지와 깊은 공명

을 이루었습니다.

이번 연주곡들은 솔직히 말하면 난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매주 토요일,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세 시간씩 강도 높은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중학생에게 있어서 소중한 토요일을 교회에 모여 함께 준비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찬양으로 성장하는 아이들

중학생의 시간은 자아를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 정성으로 찬양드리는 것을 배우고, 마음을 모아 준비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제게 큰 기대와 감동을 줍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 영락의 찬양대를 풍성히 채우고, 평생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연주회에 특별 출연해주신 차남수 장로님(중등부 부장)처럼,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아이들의 삶에도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남**

Back to the Bible! 고등부 제자훈련

고등부(부장 서상현 장로)는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 16일까지 7주간 2학기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백 투 더 바이블(Back to the Bible)'을 주제로 26명의 고등부 친구들이 참여한 이번 제자훈련은 친구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돌아가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자훈련 기간 친구들은 로마서를 꼼꼼히 해석하고 필사하면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쌓아갔습니다.

친구들은 토요일에 함께 모여 로마서의 배경과 중요한 구절들을 배워나갔으며 주중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 아침 로마서를 묵상한 후 받은 은혜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공유했습니다. 제자훈련을 마친 친구들은 11월 22일(금)부터 23일(토)까지 가평 캠프장에서 제자훈련캠프를 열고 예배와 세수식(洗手式)(사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손으로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기저귀 가는 일조차 제겐 벅찬 감사

홍천으로 1박2일 가족수련회 떠나던 날

2024년 11월 1일, 파란 가을 하늘 아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설레는 마음을 안고 홍천으로 3040 가족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설렘은 잠시뿐, 7개월이 막 지난 아이가 카 시트에 타지 않겠다고 울기 시작했고,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땀이 뻘뻘 나고 저도 함께 울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을 달려 수련회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다섯 가정의 부모와 아이들, 그리고 전도사님과 목사님까지 총 열여덟 명이 한자리에 모여 식

사를 시작했습니다. 빼악빼악 울고 보채는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 웃으며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배는 아이들을 씻기고 재운 뒤 밤 9시가 넘어 서야 시작되었습니다.

5가정 부부, 아기 등 18명 복작복작 교제

사실 아이를 낳고 신생아를 키우며 공동체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육아의 시간 속에서 신앙적으로도 무너질 수 있는 시기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말씀을 통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되새기며 현재의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예배 후, 부부들이 모여 각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김이진 집사
중구·용산교구

위해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가정은 아이의 기저귀를 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짧게 기도 드린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처럼 보이는 소변보고 기저귀 가는 일이 저희 가정에는 너무나 소중한 감사한 일임을 고백했습니다. 100일도 되지 않은 아이가 머리카락보다 얇은 척추신경 다발에 붙은 지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신경이 손상되면 하반신 마비나 대소변을 스스로 볼 수 없는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눈물로 기도했던 날들, 또 교회의 많은 분이 기도해주신 덕분에 수술 후 기적적으로 스스로 소변을 보게 된 날을 떠올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아이가 발끝까지 신경이 문제없어 잘 걷고 뛰며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중보기도로 요청했습니다. 함께 웃고 울며 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동행하며 지키시는 분

그 후에는 작은 카드를 나누며 카드에 적힌 질문을 읽고 대답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양한 질문을 통해 서로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뽑은 질문은 구성원 모두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질문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인가? 동행하는 분인가? 나를 지키시는 분인가?”였습니다. 이 질문에 잠시 마음이 멈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셨던 순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아이가 아프고 수술하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제 마음이 무너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도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3040 가족수련회를 1박 2일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아이가 아프니 가지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

린아이와 함께 분유 물, 기저귀, 아기의자 등 짐을 가득 챙겨 1박을 떠나는 일과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고생스러울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드리고 삶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정말 잘 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 양육 통해 부모님 은혜 새삼 눈 떠

수련회에서 다섯 가정의 부부가 공동으로 나눈 이야기는 당연히 자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며 한 아이를 길러내는 일이 부모의 뼈와 살을 갈아 넣는 사랑과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며, 자연스레 우리를 길러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리고 무릎이 빠근하도록 아이를 안고 흔들며 밤을 보냈던 시간은 부모의 사랑과 희생이 아니면 가능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영혼의 성장에도 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섬김이 필수적임을 느꼈습니다. 밤 11시가 넘도록 예배와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서울로 돌아가시던 목사님과 전도사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련회를 위해 사랑으로 섬겨 주신 분들 덕분에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한층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3040 가족수련회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필요하지 깨달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이지만 그럴수록 함께하면 짐을 나누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12시가 넘어서 모든 가정이 아이와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역시나 새벽에는 아이들의 울음 소리로 잠을 설쳤지만, 아침에 까치집 머리로 6개월 된 아이를 안고 있는 한 아버지를 보며 모두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기들은 너무나 생생한 모습으로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1박 2일 수련회는 우리 부부와 아이 모두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깊이 느끼며 사랑과 섬김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만남**



미켈란젤로가 활동했던 르네상스 시대(14세기~16세기)와 렘브란트가 활동했던 바로크시대(16세기 말~18세기 초)는 서로 완전히 다른 시대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발전한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원근법과 인체 해부학을 바탕으로 인간의 아름다움을 탐구하고 예술을 통해 신의 위대함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당시 교회와 귀족들이 예술가들을 후원하며 종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런 배경에서 다비드상, 피에타, 시스티나성당 천장화 같은 걸작을 통해 인간의 위대함과 종교적 경외심을 완벽하게 표현하며 르네상스 예술의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인간에서 하나님께로’

르네상스 3대 거장 중 단연 발군

르네상스는 보통 중세의 ‘신 중심적 가치관’에서 근대의 ‘인간 중심적 사고’로 전환하는 시기로 평가된다. 그러나 르네상스의 주요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면 이 평가가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미켈란젤로를 예로 살펴보자.

르네상스 예술의 3대 거장 중 한 사람인 미켈란젤로(그림)는 조각, 회화, 건축 세 가지 분야에서 최고의 작품들을 남겼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다비드상, 시스티나성당의 천장화, 그리고 성베드로성당의 돔이 있다. 이처럼 눈부신 천재성으로 동시대 사람들에게 ‘신과 같은’ 미켈란젤로라고 불렸다. 라파엘로가 우아하고 아름답게 표현했다면, 미켈란젤로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이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독창성을 보여주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여러 분야에 관심을 뿜었지만 미켈란젤로처럼 한 분야에 집중하지 않아 완성한 작품 수가 많지 않다.



김향길 안수집사
고양·파주교구

메디치가에 입양되며 르네상스 정수 터득

미켈란젤로는 13세 때(1488)에 도메니코 기를란다요의 공방에 들어가 조토와 마사초



바로크 시대는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 교회가 약화된 권위를 회복하려 노력하던 시기로, 예술을 통해 감정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종교적 열정을 불러일으키고자 했습니다. 바로크 미술은 빛과 어둠의 강렬한 대비를 통해 생동감 있고 극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중산층의 경제적 번영으로 개인과 시민단체도 예술을 후원하면서 종교적 주제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과 초상화를 다루는 작품이 많아졌습니다. 렘브란트는 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 작품에 깊이를 더하고 감동을 전한 대표적인 바로크 시대 화가입니다.



의 벽화를 모사하며 기초 회화를 배웠다. 다음 해 기를 란다요의 추천을 받아 로렌초 데 메디치의 조각학교에 입학했다. 그곳에서 2년 동안 르네상스 조각가 도나텔로의 전통과 고대 그리스 로마의 조각을 연구했다. 15세 때는 메디치 가문의 후원자인 ‘위대한’ 로렌초에게 입양되어, 로렌초가 사망한 1492년까지 메디치 가문에서 생활하며 신 플라톤 철학을 배웠다. 당시 그는 플라톤 전집을 라틴어로 번역한 학자 폴리티아노와 피렌체

대학 교수이자 메디치 가문의 가정교사였던 피치노 같은 신플라톤주의 철학자, 그리고 피렌체 최고 화가인 보티첼리로부터 교육을 받으며 르네상스 정신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미켈란젤로는 육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이 인간의 내면세계를 반영할 수 있다는 미학적 관점을 확립하게 되었다.

양아들로서 미켈란젤로와 함께 생활했던 메디치 가문의 후손들은 훗날 교황 레오 10세(1523~1521 재위)와 교황 클레멘스 7세(1523~1534 재위)가 되어 산로렌초 성당의 파사드, 라우렌치아나 도서관, 산로렌초성당의 성구실 등 여러 작업을 미켈란젤로에게 맡겼다.

‘최후의 심판’에서 드러난 미켈란젤로의 영성

미켈란젤로의 영성을 이해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 하나는 지롤라모 사보나롤라이다. 미켈란젤로는 만년에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보나롤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라고 했다. 사보나롤라는 로렌초의 초청으로 산마르쿠수도원의 수도원장이 되어 1494년



참조 : <http://artsandculture.google.com>

정면에서 본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왼쪽)와 위에서 내려다 본 '피에타'(오른쪽 위), 평온한 표정의 예수님(오른쪽 아래)

부터 화형당했던 1498년까지 피렌체를 신정정치로 이끌었다. 그는 교황의 성직 매매와 메디치 가문 및 피렌체 시민들의 사치와 허영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설교했다. 그의 설교를 듣고 '비너스의 탄생'을 그렸던 보티첼리는 더 이상 세속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종교적인 그림만을 그렸다고 하며, 미켈란젤로도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되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린 시스티나 성당 전면의 <최후의 심판> 벽화를 본 교황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했다고 전해진다.

제물로 드러지는 그리스도 ... 피에타, 위에서 보아

미켈란젤로는 21세(1496)에 이미 조각 실력으로 유명해졌다. 그가 23~24세에 조각한 성베드로성당 피에타 조각에서는 젊은 성모 마리아의 고요한 아름다움이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몸은 마리아의 무릎에 가로 놓힌 모습을 하고 있다. 앞에서 보면 영원히 아름다운 성모가 중심처럼 보인다. 이는 도나텔로나 안드레아 만테냐가 표현한 애처로운 성모와는 다른 모습이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이 피에타를 위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위에서 보면 평온한 표정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러지는 온전한 제물로서 중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켈란젤로는 26~29세(1501~1504)에 걸쳐 다비드상을 작업했다. 이 작품은 메디치 가문을 몰아낸 피렌체 공화정이 정치적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해 의뢰한 것이었다. 그 후 그는 교황 율리우스 2세(1503~1513)의 부름을 받아 로마로 갔으며, 이 때문에 피렌체에서 진행하던 신성구실, 라우렌치아나 도서관, 피렌체 두오모의 12제자상 등의 작업은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다.

예술의 맹목적 상상력 허망...하나님의 영광 갈구

1527년, 교황 클레멘스 7세의 재위 5년째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가 로마를 함락하고 약탈했다. 이를 계기로 피렌체 시민들은 공화정 복귀를 위해 봉기했고, 미켈란젤로는 자신을 양자로 받아주었던 메디치 가문을 축출하려는 반란군에 앞장섰다. 그러나 1530년 8월, 교황을 지원하기 위해 피렌체로 출병한 프랑스 군대가 승리를 거두며 메디치 가문이 다시 피렌체에 입성하게 되었다. 미켈란젤로는 로마에서 위기를 모면한 클레멘스 7세의 호감을 사기 위해 1530~1534년까지 중단되었던 신성구실 작업을 재개하며, 자신을 성찰하고 신앙에 깊이 몰두하게 되었다.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미켈란젤로가 이 시기에 남긴 글을 보면, 그는 과거에 예술을 이상처럼 섬기고 자신의 상상력을 절대화했던 것을 후회하고, 이제는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만 시선을 두기 시작했다. 인간의 아름다움을 재창조함으로써

신에게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린 것이다. 이후 생애 마지막 20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한 그의 모든 시, 회화, 조각, 건축은 신의 성전을 세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557년 조카에게 보낸 편지에서 “난 이 일을 피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했다.

미켈란젤로의 ‘피렌체의 피에타’(반디니 피에타 1547~1555, 오페라 텔 두오모 소장)는 자신의 묘에 놓으려 했던 미완성 작품이다. 이 피에타는 그리스도 좌우에 성모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그 뒤에는 미켈란젤로 자신의 모습을 담은 니코데모가 그들을 붙잡고 있다.

또한 론다니니 피에타(1552~1564, 밀라노 스포르체스코성 소장)는 미켈란젤로가 죽기 6일 전까지 작업했던 미완성의 피에타이다. 시스티나성당 천장화 작업으로 손상된 시력이 노년에 더욱 악화한 탓에 손으로 만져가며 작업을 해야 했다. 그리스도 몸을 뒤에서 받들고 있는 두건을 쓴 노인 역시 다름 아닌 미켈란젤로 자신이다. 이 작품을 보면 그가 느꼈던 깊은 신앙과 감동을 희미하게나마 경험하게 된다.

1564년 2월 12일, 그는 온종일 피에타 작업을 했다. 14일에는 몸에 열이 났음에도 비가 오는 들판에서 말을 탔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쉬라고 권했지만, 그는 16일까지 눕기를 거부했고, 결국 18일에 세상을 떠났다. **만남**

렘브란트의 자화상, 인생의 영욕을 바라보다

미술에서 '자화상'은 문학의 '자서전'과 견줄 수 있다. 독자들은 자서전을 읽으며 주인공의 행적을 뒤돌아보곤 한다. 그러나 자서전은 자신만의 삶을 기술할 뿐 다른 사람이 주인공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글쓴이가 자기중심적 생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자서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본인을 미화하게 되어 있다.

이런 사실은 자서전뿐만 아니라 자화상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대체로 화가가 자화상을 제작할 때 실제보다 멋지게 묘사하거나 꾸미는 것은 이런 심리를 반영한다. 그러나 렘브란트 하르먼손 판 레인(Rembrandt Harmensz van Rijn, 1606~69)의 경우는 좀 예외인 것 같다. 그가 남긴 자화상을 보면 자신의 민낯을 냉혹할 정도로 엄격하게 묘사했다. 자신의 허영, 위선, 욕망, 초라함, 심지어 부끄러운 과오까지 드러낸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미술 역사에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화가는 흔치 않다. 그래서 그는 '벗을 든 신학자'로 불린다. <접대부와 함께 있는 탕자>(1642년)와 <유산을 탕진하는 탕자>(1636)에선 자신을 부정한 탕자로 소개하고 있다. 호화스러운 의상에 황금 목걸이를 하고 이국풍 모자까지 쓴 허영에 들뜬 인물로 등장하기도 한다. 그의 자화상은 승승장구했던 전성기 때의 모습뿐 아니라 경제적 실패 및 위상 추락, 가족과의 이별 등 북풍한설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말년의 자화상 등에 이르기까지 명암이 엇갈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서성록 명예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벗을 든 신학자’의 파란만장한 인생사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회화 60여 점, 에칭(etching) 기법의 판화 20여 점, 소묘 10여 점으로 모두 90여 점에 이른다. 자취를 감춘 작품까지 고려한다면 전체 작품의 약 30퍼센트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수치는 매해 거르지 않고 평균 두 점씩 자화상을 제작했다는 뜻이 된다. 렘브란트가 자화상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지속해서 작품을 제작했는지를 짐작케 한다. 따라서 그의 자화상을 점검해본다면, 그의 회화의 대



그림1 <창가에서 그림을 그리는 렘브란트>,1648



그림2 <깃털이 달린 벨벳 모자를 쓴 자화상>,1638

략적인 흐름과 성격, 렘브란트 자신의 신앙적인 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창가에서 그림을 그리는 렘브란트>(1648)(그림1)를 보자. 중절모를 쓴 중년의 남성이 앞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림의 주인공은 미남형도 아니고 호감형도 아니다. 길을 가다가 만날 수 있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수더분한 인상을 준다. 중년의 화가는 모든 세파를 이겨낸 듯 초연하고, 온화한 그의 표정으로 짐작하건대 일종의 여유마저 느껴진다. 그는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것은 그림을 그리는 일 외에는 없는 것처럼 모든 관심을 그림 그리는 데에 모으고 있다.

그런데 이 자화상은 그보다 십 년 전에 제작한 <깃

털이 달린 벨벳 모자를 쓴 자화상>(1638)(그림2)과 비교된다. 1648년 자화상에서 보이는 허름한 평상복 차림과는 대조적으로 이 작품에서는 사치스러운 의상을 걸치고 있다. 그의 눈매와 다문 입에서 의기양양하고 자신만만한 호기를 엿볼 수 있다. 콧수염과 머리카락도 한껏 모양을 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쓰고 있는 모자도 평범한 화가의 것이라고는 간주할 수 없으리만치 대단히 화려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작품은 그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그의 자부심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자화상만으로 볼 때 사색적인 예술가의 이미지보다는 자만심에 부푼 '귀공자'의 모습에 더 가깝다. 이 무렵 명예와 재산을 거머쥔, 남부러운 것 없었던 렘브란트는 주위 사

람에게 유명인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지도 모른다.

이에 반해 <창가에서 그림을 그리는 렘브란트>는 겸소한 작업복을 입고 있다. 인물과 배경을 전체적으로 어둡고 무겁게 처리하여 진중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의상 보다는 인물 본연에 치중하여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응시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 무렵부터 렘브란트는 본연의 자아를 자화상에 내비추기 시작하였다. 빌헬름 핀더(Wilhelm Pinder)가 지적했듯이 “이 화가는 백 개 이상의 형태를 빌려 단 한 번의 반복도 없이 가면과 얼굴 사이에서, 영혼에 대한 비판과 찬양 사이에서, 자신에 대한 물음과 비하 사이에서, 자기를 높임과 영광스러운 변모 사이에서 자기의 본질을 이야기했다”라고 말했다.

렘브란트가 ‘자기 미화’라는 함정에서 벗어났던 것은 자화상을 그림의 한 장르로 보기보다 ‘영혼의 거울’ 같은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쌓아올린 사회적 기반이 무너지자 그는 합리적 사고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의 지점으로 기꺼이 들어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

다시 <창가에서 그림을 그리는 렘브란트>로 돌아가 보자.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힌 렘브란트를 향해 밝은 햇살이 창문을 타고 소리 없이 찾아온다. 렘브란트는 그 은혜의 햇살을 맞으며 한참 그림을 그리는 중이다. 일상에 흘러든 은혜의 햇살은 렘브란트에게 위로와 만족감을 준다. 렘브란트는 달콤한 꿈결처럼 은혜의 빛을 만끽하며 하루를 보내는 중이다. 예전에 누렸던 지위와 부, 영화는 찾아볼 수 없고 자신을 평범한 화가로 그리고 있으나, 인생 중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3 <사도 바울로서의 자화상>,1661

만년의 자화상

만년에 렘브란트는 쓸쓸한 노후를 맞았다. 변화가에 있는 그의 저택과 소유물은 은행에 압류당했고 슬하의 자녀도 잃었으며, 그의 명성은 곤두박질쳐서 그를 찾는 고객이 별로 없었다. 파산, 가족과의 사별 등 소포클레스 같은 비극작가도 더 극적으로 꾸밀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렘브란트는 아무런 불평 없이 맡겨진 일을 묵묵히 수행해갔다.

그의 자화상을 결산하는 작품으로 <사도 바울로서의 자화상>(1661)(그림3)이 있다. 여기서 렘브란트는 자신을 사도 바울로 분장한다. 그림의 분위기도 사뭇 진지하다. 허름한 가운을 입고 머리에 두건을 쓴 주인공은



그림4 <제옥시스로 분장한 자화상>, 1668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있으며 감상자에게 시선을 돌린다. 그의 눈빛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어떤 것을 바라보는 듯하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히브리서 11:1)라는 말씀처럼, 렘브란트는 이성의 눈으로는 알 수 없는 세계를 바라보고 있고, 또 그 세계를 관객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 같다. ‘앎은 바라봄으로 완성된다’라는 말처럼 렘브란트는 그가 심령으로 본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한다.

숨을 거두기 전에 제작한 <제옥시스로 분장한 자화상>(1668)(그림4)은 호우브라켄(Arnold Houbraken)의 표현을 빌리자면 “코를 틀어막아야 하는 초상화”이다. 젊은 시절 라파엘로와 티치아노와 견주면서 자신을 뽐

내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자신을 고대 그리스의 화가 제옥시스(Zeuxis)와 견준다. 지상에서 가장 현란한 재주조차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기라도 하듯이 렘브란트는 관객을 향해 빙긋이 웃고 있다.

그림의 주인공은 모든 허망한 것들과 작별을 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욕과 허영으로 점철된 실존의 무상함을 정당화하려고 애쓰나,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화가는 이런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자유가 훨씬 중요해졌다. 어떤 상투적인 미사여구도 배제한 채 슬픔을 간직한, 그림에도 세상에 원망을 보내지 않는 노인으로서 자신을 그려냈다. 하나님의 쟁기가 같고 지나간 이 주름진 얼굴에 하늘에서 은총의 빛줄기가 비춘다. 흘러가는 시간을 충만한 시간으로 채우고 있다.

그의 초상화는 청년기의 때 묻지 않은 모습에서부터 욕망으로 물든 장년기의 방황과 타락의 모습, 만년에는 구속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평안을 펼쳐 보였다. 말하자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방황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복의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그의 표정에서 우리는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엿볼 수 있다.

발터 니그는 그의 자화상을 시편 한 구절에 대한 응대한 주석으로 보았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시편 139:23~24) 렘브란트는 어떤 고난의 순간에 처해 있을 때조차 주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리라는 것을 확신한 화가였다. **만남**

네가 어디 있느냐?

제게 하나님은 답인 동시에 질문

처음 『만남』에 자유주제로 게재할 글을 요청받았을 때, 솔직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글솜씨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온 저로서는 주제를 정하는 것부터 큰 과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조각들을 돌아보며 조각조각이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을 하나씩 깎아내듯이, 삶에서 덜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덜어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남더군요. 그래서 오늘 제 신앙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하나님이 답입니다”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은 답인 동시에 질문이었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 ‘무난한 사람’을 두드린 질문

저는 오랫동안 ‘무난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특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튀지도 않는, 조용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이 제 이상이었지요. 학창 시절에는 늘 교실의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앉았고, 발표할 때도 주목받지 않을 중간쯤 순서를 선호했으며, 시험 성적도 중위권 정도면 만족했습니다.

이런 ‘무난함’을 추구하는 성향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무난한 기독교인’이 되고 싶었습니

다. 주일 예배는 드리되 예배 후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봉사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저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부터 제 마음속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질문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면 더는 무난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마치 패종시계처럼 끊임없이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눈물의 고백

야곱이 압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질문과 오랫동안 씨름했습니다. 때로는 그 질문을 피해 달아나려 했고, 때로는 화를 내며 맞섰습니다. 저와 하나님은 오랜 시간 서로의 허리를 붙잡은 채 흠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의 엉덩이뼈를 치셨고, 부러진 엉덩이뼈로 인해 무릎 꿇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후로 제 삶은 완벽히 달라졌습니다. 작은 상가교회의 유일한 청년이었던 저는 예배 자막, 교회학교 교사, 찬양, 설교, 식당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모든 가운데에서도 불평보다는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목회자로 부르심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이사야 6:8)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또다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이번 질문은 목회자로 부르심이었고, 그 길을 걸어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교역자의 길은 제가 꿈꾸던 ‘무난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으며,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요나처럼 도망쳤습니다. 교회 봉사를 줄였고 기도하는 시간도 점차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를 쫓아온 폭풍우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를 추격하셨습니다. 결국 깊은 바닷속에 던져진 것 같은 절망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선택사항이 아니라 제 존재 이유였고 살아가야 할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야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허리를 주께 매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락에 와서 시작된 질문

그 후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를 영락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영락교회에 와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성도님들의 삶은 결코 무난하거나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병마와 싸우고 계셨고,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단했고, 그들의 눈물은 깊었습니다. 이러한 성도님들의 아픔 앞에서 더는 무난한 삶을 추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시편 6:3)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특별하거나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모자란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던지신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창세기 3:9) 앞에서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질문 앞에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가 입술과 삶으로 응답하고 때로는 그 질문을 품고 하나님께 되묻기를. 그러한 과정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남**



김승겸 전도사
서대문·은평교구
경조부, 제자양육훈련부(소그룹)
영락수련원

제자-소그룹, 하나를 이루다!

2024 제자-소그룹 주간을 돌아보며

2024 제자-소그룹 주간 행사가 제자양육훈련부와 소그룹전담부 공동주관으로 지난 10월 26일(토)부터 30일(수)까지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제자-소그룹 주간은 영락교회 제자-소그룹의 활동 상황과 비전을 성도들과 공유함으로써 소그룹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제자-소그룹, 하나를 이루다’(요한복음 13:35)라는 주제로 진행된 행사 내용과 소그룹 간증을 『만남』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당회원 제자-소그룹 워크숍과 차세대 복콘서트

26일(토) 첫날 오전에는 당회원 제자-소그룹 워크숍이 ‘건강한 교회와 제자-소그룹’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주일 성경반 제자-소그룹 활동 영상과 함께 김선, 홍석희 권사의 영상 간증이 이어졌고, 박일수 안수집사가 다양한 통계와 도표를 활용해 제2남선교회의 소그룹 활동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강사로 초빙된 조찬주 원장(소그룹 리더십 아카데미)의 특강과 질의응답이 펼쳐졌으며, 김운성 목사님의 “소그룹은 예수님의 방법이며 친목이 아닌 말씀이 중심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로 워크숍을 마무리했습니다.

오후에는 제자양육훈련부 차세대TF단이 주관하는 ‘차세대 제자-소그룹 복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의 뜻을 분별하라’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자리에서는 『간절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자로 알려진 강하룡 목사님(전인성장연구소 소장)의 강의와 질의응답, 세대를 아우르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분별하며 영적 근육을 강화하는 실천적 방법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신앙 성장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차세대TF단은 지난 4월 대학부와 청년부를 대상으로 ‘비전 박람회’를 개최했으며, 이번 복콘서트 준비를 통해서도 영락의 젊은 세대가 그들의 관심사를 통해 제직부서 사역에 즐거움으로 동참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제자-소그룹 주일 찬양예배와 사진 전시

‘제자-소그룹의 날’로 드린 27일(주일)에는 베다니광장에서 성경반과 제자-소그룹 활동을 담은 사진 전시와 영상 상영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성경반과 제자-소그룹의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들과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원테이블 제자양육 프로그램 브로슈어’를 통해 다양한 양육훈련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찬양예



김경애 권사
제자양육훈련부 담당권사
강남교구



목요집중반 제자-소그룹 신앙수련회 출발에 앞서



고상섭 목사 설교(제자-소그룹 찬양예배)

배 시간에는 그사랑교회를 담임하는 고상섭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고 목사님은 이날 설교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나눔과 모델이 필요하다”, “설교가 시작이라면 삶의 열매는 소그룹의 나눔을 통해 맺혀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목요집중반 제자-소그룹 신앙수련회

28일(월)과 29일(화)에는 목요집중반 제자-소그룹 신앙수련회가 속초 설악산수양관에서 열렸습니다. ‘주인의 부름에 즉시 순종하는 삶과 신앙’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신앙수련회는 91명의 성도가 참여했습니다. 저녁 기도회에서 김운성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비우는 사람이고, 많이 비울수록 주님을 높인다”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1박 2일간 진행된 신앙수련회는 세 번의 예배와 기도회를 비롯해 한경직목사기념관과 기도처 방문, 고성 통일전망대 교회 방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제자-소그룹 주간 수요기도회

마지막 날이었던 30일(수) 수요기도회는 제자-소그룹 주간 수요기도회로 드렸습니다. 오전 1부에서는 예전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시무하셨던 유재경 목사님(대전 대덕교회)이 “제자훈련은 예수님을 향한 ‘오직 사랑의 의도’로 살아가기 위한 여정”이라고 전하며, “참 제자가 될 때 분별력, 자유, 용기, 친밀함이 성장하는 영적 선물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제자훈련의 본질을 강조했습니다. 저녁 2부에서는 이후림 목사님이 “하나님이 양육하심을 믿고 양육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라고 전하면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알고 제자양육훈련에 참여하라”라고 권면 하셨습니다.

영락교회형 제자-소그룹을 세워나가며

이번 제자-소그룹 주간을 통해, 양육훈련과 소그룹 활동이 영적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니다. 또한 다양한 소그룹이 여기저기서 잘 자라 하나님
의 나라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특히 올해
는 신앙성장 로드맵 5단계인 ‘영락양육심화과정’이 신
설되어 1기를 마쳤습니다. 제자양육훈련과 소그룹 활동

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로 세워지
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영락교회
가 더욱 성숙하고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자-소그룹 간증

전도 제자-소그룹

전도폭발훈련에 속한 전도 제자-소그룹은 말씀과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전도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함께 나눕니다. 복음 전문을 암기하며
복음으로 무장한 후 함께 기도하고, 관계전도나 노방전도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돌아오는 길은 항상 큰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소그룹 멤버들마다 서로의 모습 속에
서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보게 되며 전도의 사명을 더
욱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안경선 집사(마포·영등포교구)

차세대 QT와 북토크 반

소그룹은 영적 교제와 기도가 있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는 연약한 사람들을 안정되게 만들고, 구성원들을 영적
으로 성장시키며, 교회 부흥의 기반이 됩니다. 대학 4학년
때 다니던 교회를 떠나 영락교회로 옮겼을 때, 청년부 기자
단이라는 일종의 소그룹에 들어가 풍성한 사랑과 교제를
경험하며, 영락교회에서 결혼도 하고 뿌리 내릴 수 있었습
니다.

우리 소그룹에서는 매일 카카오톡을 통해 QT를 나누고, 모
임 날에는 일상과 QT를 함께 나눕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주

제로 한 책을 읽고 토론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눔으로
써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 자신도 영적
으로 성장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를 통해 부족했
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이 됩니다.

강명구 안수집사(강남교구)

제2남선교회 제자-소그룹

1987년 영락교회에서 결혼하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간경화 진단을 받게 되었
고, 교회 공동체에 중보기도를 요청하여 성도님들의 기도로
건강이 많이 호전될 수 있었습니다.

간경화는 완치가 없는 병으로 지금도 꾸준한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힘에 부칠 때면 어려움과 아픔을 나누고 싶지만, 많
은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
런 저에게 제2남선교회 화요기도회의 교구 소그룹은 큰 위
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저의 삶과
건강, 그리고 신앙에 관해 솔직히 나눌 수 있었고, 소그룹 식
구들은 따뜻한 공감과 위로를 건네주셨습니다. 덕분에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해결된다는 믿음을 새롭게 하
게 되었습니다.

강승구 집사(인천교구) **만남**

영락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달력, 은혜와 비전을 담다

2025년은 영락교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온 80년 역사를 담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표현하는 달력을 제작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기획은 교회와 함께하는 주님의 은혜를 담아내고, 각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기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기획의 방향 설정 : 은혜의 역사와 비전을 담은 과정

홍보출판부는 교회의 정체성과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는 최적의 디자인을 찾기 위해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지난 4월, 본격적인 기획 회의를 통해 '80년 은혜의 역사'를 주제로 정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그 은혜를 회화 작품으로 느낄 수 있도록 방향을 정했습니다.

작가 선정 : 은혜를 담아내는 손길

6월에는 작품을 맡을 작가 선정을 위해 교회 내부 및 외부 작가를 공모한 결과, 많은 지원자 중 교회의 역사와 인물들을 생생히 표현할 두 분을 결정했습니다. 탁월한 두 작가의 손을 통해 영락교회의 깊은 역사를 담아내며, 교회 가족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희철 작가는

건축학 박사이자 한국 전통 건축물과 자연을 섬세하게 세밀화로 담아내는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영락교회의 본당, 옛 선교관, 50주년기념관, 교육관, 기도원 등 주요 건축물을 담아내는 작업을 맡았으며, 교회의 역사와 정서를 따뜻하고 사실적으로 그렸습니다.



강명진 작가는

신앙적 감동을 전하는 인물화 및 일러스트 작가이자 해외 순회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자비량 선교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 어린이들에게 미술 교육과 치료를 제공하는 등 예술을 통해 신앙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창립자 한경직 목사님, 김운성 위임목사님, 어린이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작업 과정과 구성

영락교회 80주년 기념 달력은 은혜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담아내고, 각 가정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정성을 담아 제작했습니다. 80년의 은혜와 앞으로의 비전을 담은 달력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과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 방향과 스타일 선정

2025년 달력의 표어는 ‘은혜의 80년, 이제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라’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영락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80년의 은혜’를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달력은 사실적이면서도 따뜻한 감성을 담아내는 스타일로,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2. 사진 선정과 작화 방향 전달

교회의 본당과 50주년기념관, 기도원 등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사진을 선정하여 작가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사진은 작화 방향 설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고, 교회 건축물의 역사적 의미와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리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3. 초안 검토와 보완 과정

작가들이 보내온 초안 그림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보완 작업을 거쳐 달력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교회 역사와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도록 했습니다.

달력 디자인과 구성

이번 달력은 80주년 기념 달력의 회화적 감성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뜻한 아이보리 색 아르떼 용지를 사용해 작품의 섬세함을 살리고, 내구성을 위해 130g 용지를 선택했습니다. 디자인은 최근의 트렌드에 맞춘 간결하고 세련된 서체로 구성했으며, 작은 달력은 생략해 회화 작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보출판부는 이 달력이 2025년 한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기시키는 도구가 되기를 기원하며, 일상에서 주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영락교회를 세우신 한경직 목사님과 성도들을 이어가는 오늘날의 교회 모습, 그리고 김운성 목사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표현하여, 8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달력 배포 안내와 감사의 말씀

2025년 영락교회 80주년 기념 달력이 12월 첫 주일부터 각 구역으로 배포될 것입니다. 구역장 또는 구역 봉사자 한 분이 대표로 수령하여 각 가정에 전달합니다. 이 달력이 한 해 동안 교회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기시키는 소중한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만남**

이주형 안수집사
홍보출판부 홍보위원장
종로·성북교구



신앙생활, 앱으로 스마트하게 - 신앙포탈 설치·사용 설명서

지난 11월 17일, 영락교회 신앙포탈 앱이 정식으로 오픈되었다. 성도와 교회를 디지털로 연결하는 매우 편리한 도구로 기획한 신앙포탈 앱의 설치 방법과 기본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 신앙포탈 앱 설치 방법

스마트폰의 종류에 따라 설치 방법이 다르다.



Google Play

안드로이드(갤럭시 등)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영락교회 신앙포탈"
또는 "신앙포탈"을 검색하여 앱을 설치한다.



아이폰

애플 앱스토어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검색하여 앱을 설치한다.

간편설치



영락교회 신앙포탈



간편설치



중요!

검색 시 '영락교회'만 입력하면 다른 앱이 검색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앙포탈"까지 정확히 입력한다. 앱의 아이콘을 잘 확인하여 선택한다. 또한 QR코드로도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본인의 스마트폰에 맞는 QR코드를 스캔 후 설치 페이지로 이동하여 설치 후, 첫 실행 시 알림 수신 여부를 묻는 창이 뜨면 반드시 '허용'을 선택해야 교회에서 보내는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신앙포탈 앱 로그인 방법

로그인 정보는 기존 영락교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사용했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그대로 사용한다.

기존 회원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 가능하다. 비밀번호를 잊었을 경우, 스마트폰 인증 절차를 통해 재설정할 수 있다.

신규 회원 영락교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

로그인 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저장하면 이후에는 별도로 로그인하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 위 방법을 사용해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IT미디어부 (☎ 02-2280-0247~8)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림은 로그인 화면과 QR코드(홈페이지 회원가입 사이트로 이동할 수)이다. 이를 활용하여 간단히 접속할 수 있다.



● 신앙포탈 앱의 주요 기능

앱 설치 후, 다양한 기능을 경험할 수 있다. 이번 신앙포탈은 성도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1) 성도 맞춤 서비스의 제공

기존의 영락교회 홈페이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개별 성도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신앙포탈 앱은 성도 개인의 스마트폰과 교회를 연결해, 아래와 같은 개별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가능해진 기능은 아래와 같다.

교직원정보	교육봉사이력	헌금내역
성명	안드레	
생년월일	1975. 12. 01	
직분	성도	
연락처	010-0000-0000	
신급	세례(2020.12.24)	
등록일	2024.01.01	
세대 정보		
교구	00영락교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33 (저동1가) (04552)	
세대주	안드레	
교육 정보 변경 요청		

교직원정보	교육봉사이력	헌금내역
교육 이력(※ 교육봉사 포함)		
봉사 이력		
예배위원		
구역봉사 이력		
봉사 이력 변경 요청		
교육/교사봉사 이력 변경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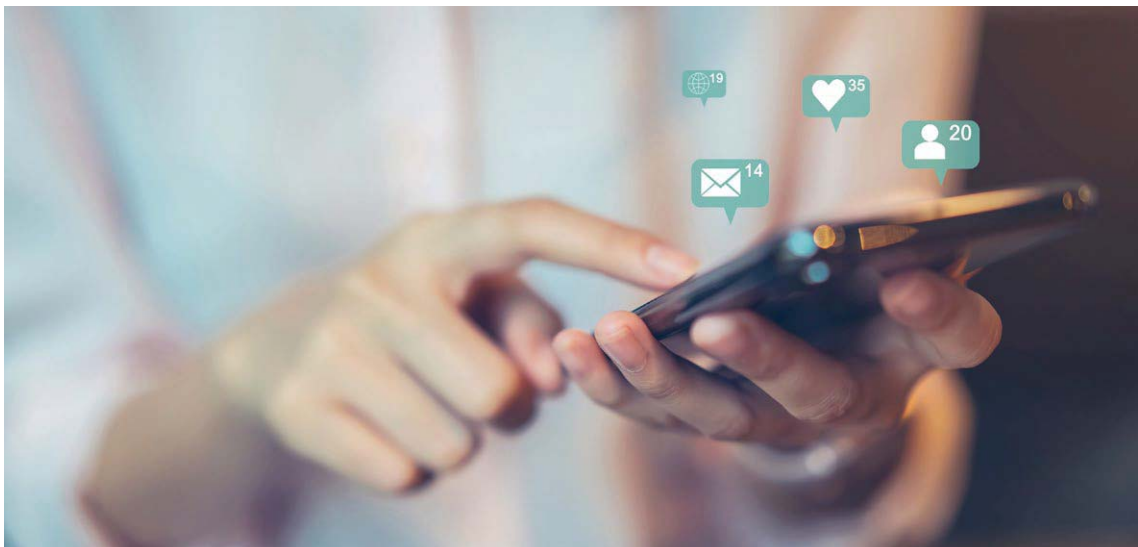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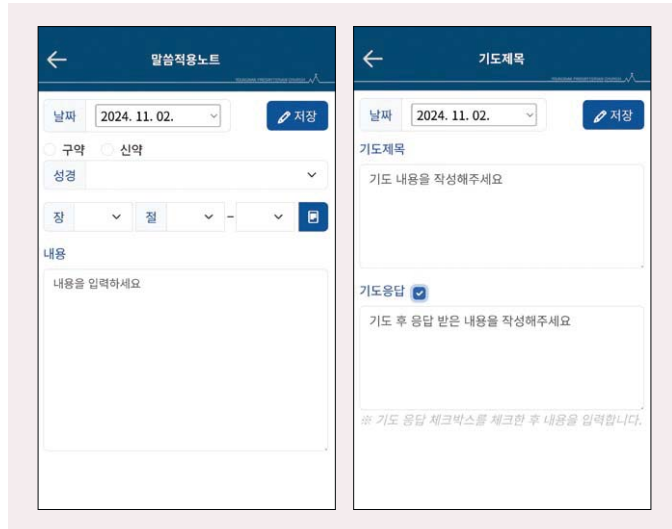
① 개인 맞춤 정보 제공

- ✓ 교적 및 헌금 정보 확인: 기존처럼 행정처를 방문하지 않아도 앱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 ✓ 정보 수정 요청: 잘못 및 누락 정보가 있을 경우, 앱을 통해 바로 수정 신청이 가능하다.
- ✓ 교육 및 봉사 이력 확인: 성도 개개인의 신앙 활동 이력을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나만의 신앙 노트

신앙포탈은 성도들에게 개인 신앙 노트를 제공한다.

- ✓ 말씀적용 노트와 기도제목: 앱을 통해 편리하게 묵상 내용과 기도제목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다.
- ✓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보관: 작성된 신앙 노트는 안전하게 저장되어, 언제든지 과거의 신앙 여정을 돌아볼 수 있다.



2) 편리한 알림 및 신청 기능 제공

① 실시간 교회 및 교구 소식 알림

신앙 포탈 앱은 실시간 알림 기능을 통해 교회 및 교구 소식을 성도들에게 전달한다.

- ✓ **알림메시지** : 교회 행사, 예배 일정, 주요 공지 사항을 카카오톡 알림처럼 빠르게 받아 볼 수 있다.
- ✓ **맞춤형 교구 소식** : 해당 교구 성도에게 필요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여, 교구 구성원 간의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친밀한 교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② 교육 및 봉사 기회 알림과 신청 기능

신앙포탈 앱은 교회 내 각종 교육과 봉사 기회를 실시간 알림으로 제공한다. 새로운 기회가 공지되면 성도들은 신앙포탈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성도들은 교회 사역에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으므로, 봉사와 교육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

- ✓ **디지털화된 절차** : 기존의 번거로운 현장 접수 및 등록 과정을 대체하여, 모든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 ✓ **효율적 처리** : 신청 내용은 해당 부서로 자동 전달되어 빠르게 처리된다.

The image displays four screenshots from the '신앙포탈' (Faith Portal) app. The top-left screenshot shows a '알림 메시지' (Notification Message) screen with three messages: a notice about a change in the 10th district meeting location, a notice about a church meeting, and a notice about a meeting with the pastor. The top-right screenshot shows the '00(영락교구)소식' (00(Yeongrak Church District) News) section, listing various church events and services. The bottom-left screenshot shows the '교육강좌' (Education Course) section, listing a '기초컴퓨터교육' (Basic Computer Education) course. The bottom-right screenshot shows the '교육강좌모집 상세내용' (Education Course Recruitment Detailed Content) for the '기초컴퓨터교육' course, including dates and a '신청' (Apply) button.

신앙포탈은 교회와 실시간 소통, 교구 내 친밀한 교제, 개인 신앙 이력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앞으로도 성도들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기능을 지속해서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신앙포탈의 오픈은 영락교회의 디지털 전환을 향한 첫걸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을 모든 성도가 적극적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하면서 불편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교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여 함께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 앞으로 신앙포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선교로 하나 되는 영락교회의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한다. **만남**



강명구 안수집사
IT미디어부 차장
강남교구

우리는 ‘평생대학 실버스타’

친교부(부장 양성환 장로) 평생대학은 교회 안의 은퇴자들이 모여 믿음의 선배로서 예배하며 교제하는 공동체다. 평생대학 취미활동반에서 각자의 취미와 관심에 맞는 반으로 모여 한해동안 준비하여 선보이는 발표회가 11월 20일 (수) 오후 1시 베다니홀에서 열렸다. 찬양을 시작으로 연 개회예배는 박명일 목사의 인도로 김충섭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남은 삶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육신의 건강과 함께 기쁨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다. ‘평생대학 실버스타’라는 명칭을 달고 무대를 연 공연은 첫 순서 ‘예수향기’라는 워십을 시작으로 아코디언, 하모니카, 클래식 기타, 합창반의 음악과 실버댄스 A·B반, 난타, 사물, 우리춤 몸찬양 등 11개팀이 다양한 공연을 펼치며, 관객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사진제공 친교부



평생대 합창



사물



우리춤 몸찬양



오카리나



실버댄스A



실버댄스B



아코디언



클래식 기타



하모니카



합창반



예수향기



난타

책(Book)을 읽고 감동을 적어 나누는

2024 북적북적 독서행사 공모전 심사 결과보고

올해로 제8회를 맞이한 북적북적 독서행사 공모전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세상』이라는 주제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87편 응모...대상 3편 등 86편 수상작 선정

이번 공모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교회 산하 7개 기독교 학교 재학생들은 물론 송실중, 경신중고, 정신여중, 예일디자인고 등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소속 학교들이 참여하여 287편의 작품이 응모되었습니다.

심사는 교회 내 홍보출판부, IT미디어부, 영락미술가협회 등 관련 분야 전문 심사위원 9인이 참여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대상 3편, 최우수상 16편, 우수상 39편, 장려상 28편 등 총 86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습니다.

독서 넘어 기독교세계관 삶에 적용하는 계기

이번 공모전은 단순히 독서를 넘어, 청소년들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문해력 부족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운데, 재미보다는 의미를 찾는 독서를 통

해 스스로 도전하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불신 학생들이 공모전 선정도서를 읽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자 한다고 고백을 남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북적북적 독서행사 공모전이 지닌 큰 미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청년들에 독서·신앙 의미 새겨

수상작 전시회는 11월 10일(주일)부터 23일(토요일)까지 베다니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전시를 통해 성도들은 청소년들이 독서를 통해 쌓아온 신앙적 성장과 성장의 흔적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독교 학교 시상식은 각 학교별로 진행했으며, 청소년들에게 독서와 신앙적 탐구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주는 기회였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묵상 돋보여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세상’이란 주제로 진행된 ‘2024 북적북적 독서공모전’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던져졌으나, 평소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쳤던 질문들을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답을 알지만 정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바로 세우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자 함을 글 속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믿음의 씨앗을 싹 틔워가는 다음세대를 위한 세계관 도서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교회 공동체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인식을 제공하는 좋은 책들이었습니다.

독서감상문 부문의 평가는 선정도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 창의적인 접근, 문장 기술의 완성도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했고, 더해서 글이 주는 감동을 보았습니다. 회화와 UCC 부문의 평가는 재료 혹은 매체의 특성을 살린 표현력, 주제와 내용의 창의성, 독창적 형식이 있는 예술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쉽게도 일반부에서는 대상작을 배출하지는 못했지만, 최우수상을 차지한 송명호 성도의 글은 간명한 문체 속에 ‘세계관’에 대한 필자의 문제 제기와 고민의 흔적들을 잘 담아냈습니다.

청소년 부문 응모작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현실을 떠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푸른

바람의 나라로 초대하는 책에 대한 독서감상문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중등부 대상작인 보성여중 심재하 학생의 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쁨과 평안을 잃은 삶을 떠나, 창조주 하나님의 푸른 바람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열등감과 불안에서 벗어나 새로운 힘을 얻고, 젖텐 아이와 같은 고요와 평강을 누릴 것을 믿는다는 자신의 고백을 진솔하게 표현한 점이 돋보입니다. 회화와 웹툰도 주목할 만한 작품이 다수 보였습니다. 중등부 공동 대상작인 영락교회 중등부 방송반의 UCC는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중학생 특유의 코드에 담아내어 분명한 메시지 전달이 돋보인 수작입니다. 고등부 대상인 예일디자인고 전유빈 학생의 회화작품은 재료의 특성을 살린 표현력과 작가의 상상력이 눈에 띄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좋은 글들이 많아집니다. 특히 올해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데 기반이 될 ‘세계관’에 대한 고민과 묵상이 공모작마다 질게 물어났습니다. ‘독서는 선물’이라고 한 유진 피터슨의 말처럼 선물과 같은 책 읽기의 즐거움을 깨닫고 확고한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타인의 문화를 존중하며 단호하면서도 유연하게, 분명하면서도 자상한 시선으로 예수님이 꿈꾸시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함께 꿈꿔봅니다.

(2024 북적북적 독서공모전) 심사위원 일동

이유를 말해봐, 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해야 하니?

「성경적 세계관 강의」를 읽고

송명호 성도

- #1 군복무시절 가장 어려웠던 일은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참는 것이었다. 하지만 끝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겨내고 넘길 수 있었다.
- #2 나는 연명치료를 찬성했다. 의술로 소중한 생명을 유지하고 기적적으로 되살릴 수 있음을 기대했다.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 생명의 연장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 #3 한국 선교 역사에서 가장 허무하고 가치가 없었다고 느꼈던 것은 초기에 한국에 도착한 선교사들이 복음증거는 커녕, 기록도, 이름도 없이 순교한 사건이라 생각했다. 그 선교사들 개인의 죽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암울한 그때 그분들은 절망적 현실 속에서 미래를 보았을까? 아니면 어릴 때부터 맹목적으로 그렇게 배워왔기에 기계적인 순종이었나? 궁금했다.

「성경적 세계관 강의」를 읽기 시작하자 챕터별로 한숨에 읽을 것 같았다.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이 파트별로 핵심으로만 간결하게 정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번 더 생각하기’를 통해 요약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결국 다 읽는 데 일주일이 넘게 걸렸다. 영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세대를 살며, 교회에 왜 다니냐는 질문에 사족 없는 간단한 답이 필요했기에 독서 진도가 나갈수록 지적 욕구가 해갈되고 빛이 보였다.

크리스천이라면 본인들이 성경적 세계관이라 생각하는 무언가를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표현이 다르고 정의를 내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 여호수아서에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요점이다. 전통 신앙과 교리를 흔드는 혼란한 이론들과 추종자들 사이에서 마음의 강함과 담대함 없이는 영적 싸움에서 물러서다 결국 죽는다. 무지에서 오는 흔들림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 목숨을 걸 만큼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린다. 이를 틈 타 ‘신천지’ 등 사이비종교가 많이 생겼다. (완성 단계에서 나오는 ‘신천신지’라는 표현은 신천지로 인해 퇴색된 의미를 조금이나마 맑게 해주었다)

성경적 세계관 강의 책을 읽은 후 문득 내가 만난 하나님은 매일 뜨고 지는 해를 운행하시는 성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눈을 뜨고 숨을 쉴 때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알 수 있다. 천천히 호흡할 때 들숨과 날숨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에 관여하심이 느껴진다. 주변의 소음과 움직임에도 방해 없이 집중된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경험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다. 24시간 이런 환희 속에 사는 것은 아니지만, 드디어 나도 익숙해져버린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 사이에서 눈을 뜨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섭리에서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분명하게 찾았다. 내가 느낀 성경적 세계관은 각 개인마다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나는 이 깨달음을 평생 기억해야 한다.



- #1 세월이 흐른 후 내가 겪은 사소한 일도 전부 가치 있고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제대를 기다리며 결국 만기 전역을 경험한 나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역사에서 주님의 재림과 완성을 믿고 기대한다.
- #2 2024년 8월 15일 나는 연명치료를 거부했다. 나의 생과 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기에 흐름에 맡기리라.
- #3 선교사들이 선교 배에 올라타고 한국에 와서 순교한 것은 흐릿한 믿음이 아니라 목숨을 걸 수 있는 또렷한 성경적 세계관으로 설명된다. 아는 것만큼 보였기에 나는 무지한 의문을 품었다. 그러나 나의 이 의구심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해주신다.

탄생, 성장, 실수, 성공, 죽음에 관한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행복하게 살겠다.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구원하신 그분께서 내가 어떤(무기력하거나, 열정이 넘치거나, 기쁘거나, 외롭고 슬플 때) 것을 선택하더라도 가장 좋은 길로 역사하심을 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흔들림이 클수록 나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빼내려는 사탄의 최후 발악임을 또한 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라는 운동주의 한 시구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인다. **만남**

모든 것 주심 감사! 추수감사절... 총동원 전도주일과 함께 드려

지난 11월 17일 추수감사절을 맞아 교회와 성도들은 추수감사주일 예배와 연합찬양 예배를 통해 모든 것 주시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자유인이 된 중'(요한복음 8:31-36)이란 제하의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선포한 김운성 위임목사는 "영락 성도들이 더 많은 감사의 열매를 맺길 바란다"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으로써 자유하는 영혼에서 나오는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자"고 전했다. 오후 찬양예배는 음악부 소속 8개 찬양대로 구성된 연합찬양대의 추수감사 음악예배(사진)로 드렸다. 연합찬양대는

조형민 안수집사 지휘로 <감사의 축제 찬송>을 비롯한 성가곡들을 통해 성도의 감사신앙을 찬양으로 고백했다.

한편 이날은 지난 9월 22일부터 8주간 진행되어온 '2024 총동원 전도캠페인'을 마무리하는 총동원 전도주일(관련기사 12면) 행사가 펼쳐졌다. 예배 중 축복의 시간을 통해 예배에 처음 참석한 모든 분을 박수로 환영했고, 베다니광장과 봉사관 앞에 설치된 전도부스에서는 환영의 선물을 전달하며 새가족 등록을 도왔다.



바울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추수감사절 특별새벽기도회

추수감사절 특별새벽기도회가 '바울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라는 주제로, 지난 11월 11일(월)부터 16일(토)까지 매일 오전 6시(토요일 6:30) 본당에서 열렸다.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락의 가족이 이른 아침 본당을 찾아,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 축복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귀한 은혜의 시간을 함께했다.

기도회 기간 김운성 위임목사는 사도행전과 로마서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체험되고 고백되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날 우리 삶에 비추어 묵상하며 주님께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축복의 말씀을 전했다. 김운성 목사는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특별히 대하시므로 모든 순간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영락 성도들이 되길 기원했다. 또한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기를 축원한다"면서 풍성한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헌신과 오병이어...교회창립 79주년 음악예배 드려



교회창립 79주년을 기념하는 음악예배가 지난 11월 24일(주일) 오후 찬양예배 시간에 본당에서 열렸다. '헌신과 오병이어'를 주제로 열린 이날 음악예배는 임마누엘찬양대(지휘 최상규 안수집사, 오르간 박소현 집사)가 찬양하고, 임마누엘 브라스앙상블과 임마누엘 핸드벨콰이어가 협연했다. '헌신과 오병이어'를 주제로 열린 창립79주년 음악예배는 영락교회의 역사를 중심으로 교회 역사에 담긴 은혜의 의미를 소개하는 영상과 찬양이 어우러지며 진행됐다.

79년 전 한경직 목사와 27명의 월남 피난민이 함께 시작한 베다니교회의 출발은 '헌신'이었다. 헌신을 주제로 제작한 영상과 함께 찬양대가 '살아계신 주(Lloyd Larson)'를 찬양하자, 복녘의 정든 고향을 떠나 광야 같은 길을 걸어온 실향민과 함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락교회의 시작을 회상케 했다.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던 창립 초기 삼천만, 오천만 동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며 기도했던 당시를 떠올리며 합창곡 '교회의 참된 터는(Dan Forrest 편곡)'이 이어졌다. Dan Forrest가 편곡한 브라스와 퍼커션, 오르간의 하모니는 찬양대의 합창

과 함께 예수가 참된 교회의 터이며 귀한 말씀으로 세운 교회가 주님의 신부임을 웅장하고도 화려하게 청중들을 찬송 페스티벌(Hymn Festival)로 인도했다.

임마누엘찬양대의 미국 순회 연주 당시 메인 찬양곡이었던 '주님'이 배경음악으로 깔리며,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설교하는 이철신 원로목사 영상과 함께 '성도들이 함께 창조주를 찬양하자'는 의미의 '다 찬양하여라(J. Paige, B. Nix)'를 노래했다. 교회창립 80주년을 바라보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영락교회를 통해 시대적 사명과 기적의 미래를 보여주실 주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김운성 목사의 메시지 영상에 이어 마지막 찬양곡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J. Paige, B. Nix 편곡)'를 임마누엘찬양대와 박소현 오르가니스트, 임마누엘 브라스와 퍼커션이 협연하면서 음악예배의 대미를 마무리 했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이 자리에서 1994년부터 임마누엘찬양대를 지휘해온 최상규 지휘자의 수고에 감사했다.

중보기도의 힘! 영락기도대 기도학교 마쳐

영락기도대

영락기도대가 주관하는 기도학교가 지난 11월 6일과 13일 양 일간에 걸쳐 50주년기념관 604호에서 열렸다. '중보기도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기도학교에는 기도를 배우고 싶은 초신자와 더 깊은 기도를 드리기 원하는 성도를 포함 200여 명이 참여했다. 기도학교 강사를 맡은 최재선 목사는 1강 '중보기도 사역이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2강 '응답받는 중보기도의 비결', 3강 '교회와 함께 하는 중보기도', 4강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중보기도' 순으로 강의했다.

영락기도대는 내년에도 기도학교를 통해 영락교회 안에 기도



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확산될 수 있도록 기도 사역의 지속과 저변 확대를 위한 '기도자 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입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을 위한 수능기도회 열려

고등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이었던 지난 11월 14일 (목) 자녀의 입시를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수능기도회가 고등부(부장 서상현 장로) 주관으로 50주년기념관 드림홀에서 열렸다. 수험생 학부모를 비롯한 가족, 고등부 교사, 구역 식구



등 110여 명의 성도가 참석한 수능기도회는 수능시험 시간표와 동일한 시간대(오전 8:40~오후 5:45)에 걸쳐 진행되었다. 기도회는 교육부 목회자 4명(방덕중·이종실·홍지연·이영호 목사)이 인도했다.

참석자들은 기도회 순서지 1면에 게재된 고등부와 베드로부 수험생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으며, '능력을 위한 기도, 비전을 위한 기도, 진로를 위한 기도' 등 9개의 공동 기도 제목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렸다. 수능기도회는 수능이라는 기회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을 찾아가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권사회 찬양대, 제2회 정기연주회

권사회

권사회 찬양대(대장 김영하 권사)의 제2회 정기연주회가 지난 11월 2일(토) 오후 6시 선교관에서 열렸다. 이번 연주회는 지휘 김진수 권사, 반주 박은하 권사, 피아노 김혜인, 바이올린 현성은, 첼로 이새롬, 플루트 김해연과 50여 명의 단원이 참여하여 선교관을 가득 메운 성도와 함께 찬양의 기쁨을 나눴다. 이번 연주회에서 권사회 찬양대는 합창 9곡, 피아노 트리오 2곡 등의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사했으며 협연으로 영락 장로합창단의 합창, 남성중창의 순서가 이어져 연주회의 풍성함을 더했다. 찬양대원들은 평소 같고 닦은 천상의 하모니로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으며, 청중의 앙코르 요청도 2곡이나 이어졌다. 지난 2000년 권사회 후원으로 창단한 권사회 찬양대는 현재



80여 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님이 부르시면 어느 곳이라도 기쁨으로 달려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열정적 헌신을 펼치고 있다.

2025 향존직 선거, 장로 5명·안수집사 14명 선출

선거집행위원회

지난 11월 3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 2025 향존직 선거 결과 장로 5명, 안수집사 14명이 선출됐다. 11월 3일에 진행된 1차 투표는 당회 공천을 받은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10일에 진행된 2차 투표는 1차 투표결과 미선출 인원수의 1.5배수



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산개표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향존직 선거에는 총 7,029명의 성도들이 투표에 참여했다(1차: 3,548명, 2차: 3,481명).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된 향존직 피택자들은 1년간 소정의 교육과 봉사 과정을 마친 후, 교회창립 80주년 기념 주일인 내년 12월 7일에 있을 임직식에서 장로 장립과 집사 안수를 받는다. 2025 향존직 선거 피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장로 피택

오은택 목흥균 권기용 이민하 한요셉

안수집사 피택

김경석 백정진 송승호 권오택 조명철 한철형 김학성 류승호 김주엽 조현수 신철호 이찬희 이성재 김명성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길...금성의 집 추수감사절 예배

사회봉사부

사회봉사부(부장 김두형 장로) 봉사자를 비롯한 성도 50여 명은 지난 11월 12일(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사단법인 세계교회·갱보협회(이사장 김운성 목사) 생활관인 금성의 집을 방문, 입소자들과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 1991년에 창립한 세계교회·갱보협회(이하 갱보협회)는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민간법인으로서 교정 시설 재소자를 상담과 신앙으로 교정·교화하고, 만기 출소자 중 무의탁자들을 보호함으로써 재범 발생을 방지하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취업 알선을 비롯한 자립 지원 사역을 펼치고 있다.

금성의 집에 입소 중인 무의탁 출소자 형제 20명과 함께 드린 이날 예배는 갱보협회 사무총장인 박종민 은퇴장로의 인도로 시작되어 사회봉사부 김충섭 지도목사의 기도, 금성의 집 형제



들의 특송(‘주 나의 반석’) 순으로 이어졌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갈라디아서 5:1)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김운성 목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에 메이지 말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길 바란다”며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손중철 원로선교사 별세



1981년부터 2004년까지 영락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싱가포르한인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했던 손중철 선교사가 지난 11월 20일(수) 86세로 별세했다. 1978년 중화권 선교를 위해 총회 파송 대만 선교사로 부임하며 해외선교 사역의 길을 걷기 시작한 고인은 1981년 동남아 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한 한경직 목사 권유에 힘입어 싱가포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손중철 선교사 부임 2년 만에 싱가포르한인교회는 11개 교회를 개척했고, 1990년대에는 인도네시아 바탐에 진승학원의 전신인 두나스 바루 교육재단을 설립하는 등 동남아 선교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영락교회와의 선교적 동역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고인의 장례예배는 11월 23일(토) 오전 본당에서 김운성 위임목사 집례 가운데 교회장으로 엄수된 후 장지인 영락동산에 안장됐다. 유족으로는 사모 박정순 권사와 1남 1녀를 두었다. 사진은 1992년 1월 신년하례식에서 한경직 목사와 자리를 함께한 고인(왼쪽).



사진제공 역사자료실

송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 '해외 기독교 유물 초청전'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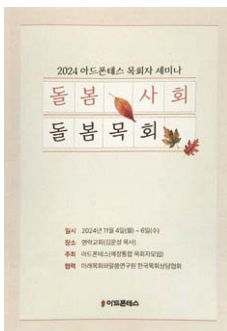
성경의 전승과 종교개혁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해외 기독교 유물 초청전이 지난 10월 10일부터 송실대(총장 장범식) 한국기독교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다. 송실 개교 127주년과 서울 재건 70주년을 맞아 '영감·흔적·송실'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는 해외 유물 133점과 국내 유물 80여 점으로 구성됐다.

1부 전시인 '성서의 배경과 역사는 구약 및 신약성서의 증거가 되는 <대이샤야서 두루마리>, <파피루스 52> 등의 희귀 자료와 중세시대 성경 필사본을 통해 성서의 역사와 배경을 소개한다. '루터와 종교개혁'을 주제로 한 2부 전시에서는 루터의 <95개 조 반박문>, 루터가 바르트부르크성에서 독일어로 번역한 신약성서 원본, 흠정역(欽定譯)으로 불리는 영국 『킹 제임스 성경』 초판본 등의 유물을 볼 수 있다. 3부 전시는 '한국 기독교와 송실'을 주제로 최초의 한글 신약성서 『예수성교전서』 원본을 포

함해 송실대 설립자 베어드 선교사, 장신대 설립자 마펏 선교사의 유품을 볼 수 있으며, 한경직 목사의 유품도 함께 전시되어 찾는 이의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는 12월 30일까지 열리며,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 매주 화요일은 휴관한다.



아드폰테스 2024 목회자 세미나, 돌봄 사회·돌봄 목회를 주제로 열려



최근 들어 사회적 양극화 속에 교계를 중심으로 돌봄 사역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돌봄 사회·돌봄 목회'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예정 통합 교역자들의 모임인 아드폰테스(회장 과천교회 주현신 목사) 주최로, 지난 11월 4일(월)부터 6일(수)까지 우리 교회 선교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첫날 『한국 교회 트렌드 2025』 공동저자인 목회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를 비롯해,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이기병 교수, 과천교회 시냇가상담센터장 김창한 목사가 특강을 펼쳤다. 특히 지용근 대표는 싱글친화교회, 시니어 사역 등 한국 교회 주요 사역에 대한 예측 결과를 소개하면서 '교회 수축시대'의 대응전략으로 소그룹 강화, 연령별 중심의 교구 재편 등을 강조했다. 둘째 날에는 김운성 위임목사가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게'를 주제로 기조 설교를 전했다. 또한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를 비롯한 4인의 패널이 나서 돌봄 목회의 방향성과 돌봄 사역의 실제적 사례를 중심으로 열린 토론을 펼쳤다.



뷰티풀 라이프...셀 위 댄스?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의 그림 '시골의 춤'(1882~1883)은 그의 유명한 댄스 3부작(부지밭의 춤, 시골의 춤, 도시의 춤) 중 하나로, 밝고 활기찬 무도회 분위기를 생생히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무도회 테마를 원했던 상인 폴 뒤랑-뤼엘의 의뢰로 제작되었으며, 르누아르의 예술적 철학인 "그림은 즐겁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지론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림 속에서 춤으로 흥겨움을 표현하고 있는 여인의 붉게 물든 뺨과 미소 띤 표정은 시골 무도회의 열기를 고스란히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20세 초반이던 '알린 샤리고'가 실재 인물인 이 여인은, 훗날 르누아르의 아내가 될 인물입니다. 남성은 화가의 친구였던 '폴 로트'를 모델로 했습니다.

'시골의 춤'은 르누아르의 밝고 화사한 색감과 생동감 넘치는 표현으로, 단순히 춤을 묘사한 것을 넘어 보는 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시골의 춤은 시골 무도회의 활기찬 정취와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만남**

글 정재원 편집위원

Dance in the Country

1883,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Pierre-Auguste Renoir)

2024년 12월호 통권 609호

발행 2024. 12. 01.

발행인 김운성 / 지도목사 강승훈 / 편집인 김태영 / 편집장 권오란

편집위원 이형일 조지형 소남호 박선이 정용성 김성문 김윤영 류정현 안하운 정재원

기자 김경옥 박진현 이재향 이현지 인 미 최윤미 / 사진기자 원종석 유승헌 / 교열 김응기 이광미 조한아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 디자인 design 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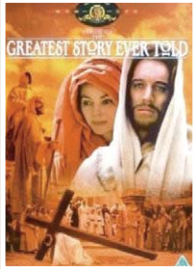


월간 '만남' e-Book



영락시어터 12월 상영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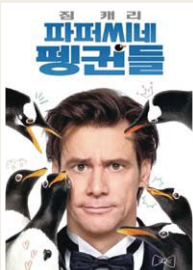
(50주년기념관 B1 소강당, 주일 오후 2시)



위대한 생애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1965) ALL 199분 1일(상), 8일(하)

감독: 조지 스티븐스 출연: 맥스 본 시도우, 마이클 앤더슨 주니어, 찰튼 헤스톤

세 명의 현자(賢者)가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를 찾아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께 경배드린다. 유대 왕의 탄생 소식에 헤롯왕은 두 살 아래의 사내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예수의 가족은 이집트로 피신한다. 이후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온 예수는 광야로 나가 40일을 금식하며 사단의 시험을 받는다.



파퍼씨네 펭귄들 (Mr. Popper's Penguins, 2011) ALL 94분 15일

감독: 마크 워터스 출연: 짐캐리, 칼라 구지노, 오피리아 러비본드, 앤젤라 랜즈베리, 매들린 캐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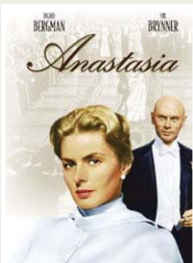
오로지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업가 파퍼는 일에만 매진하며 살아 가족들과 관계가 서먹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유산이라며 살아있는 펭귄들이 파퍼의 집에 배달 오고 펭귄들을 돌려보내려던 찰나, 아들은 자신을 위한 생일선물이라고 오해한다.



34번가의 기적 (Miracle on 34th Street, 1994) ALL 114분 22일

감독: 레스 메이필드 출연: 마라Wilson, 리처드 애튼버러, 엘리자베스 퍼킨스, 딜런 맥더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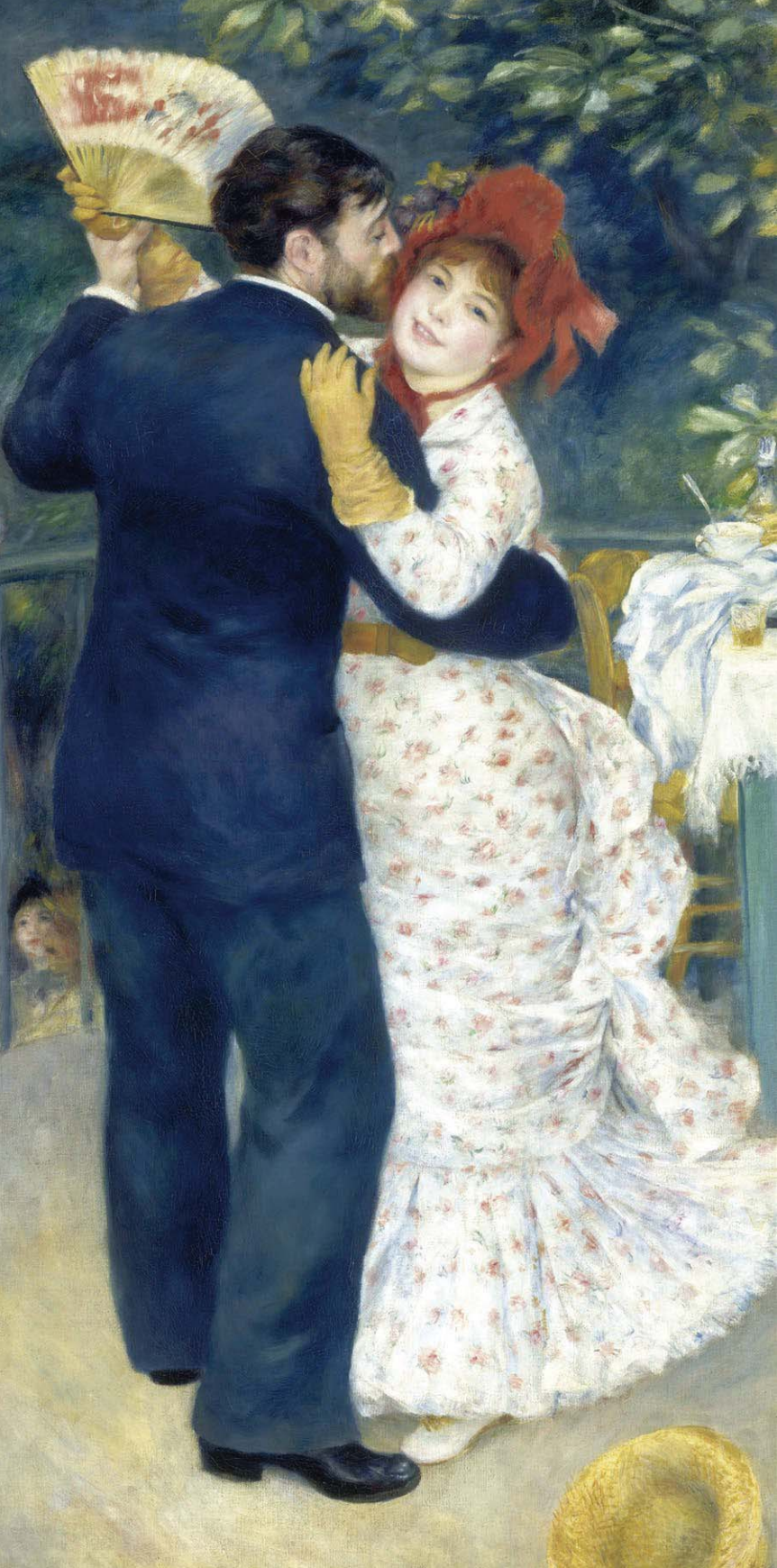
아이들을 사랑하는 노신사 크리스 크링글은 콜즈 백화점 특별행사 담당자인 도리의 부탁을 받아 산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지만, 그녀의 딸 수잔은 상상 속의 존재를 믿지 않으려 한다.



아나스타샤 (Anastasia, 1956) ALL 105분 29일

감독: 아나톨 리트바크 출연: 잉그리드 버그먼, 울브리너

1928년 파리에서 러시아의 부니 장군은 거리에서 행색이 초라하고 기억을 잃은 여성을 발견하고 러시아의 마지막 공주인 아나스타샤로 둔갑시킨다.



시골의 춤 1883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Pierre-Auguste Renoir)

▶ 작품 내용은 60페이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